
충청남도 농촌이주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및 이주 진작을 위한 정책 제안

2021. 7.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정민철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신소희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책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선행연구 검토	
1) 삼선재단, 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3
2) 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4
3) 듣는연구소,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현황 연구	5
4) 시사점	7
3. 연구의 분석틀	
1) 수도권 외 '지방'에서 농촌 '면' 단위 지역으로 접근하기	7
2) '청년의 문제'에서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기	8
3) '무엇을 할까'에서 '어떻게 할까'로 질문을 전환하기	8
4.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9
2) 연구 방법	9
II. 농촌 지역 특성과 농촌이주청년 정착 과제	
1. 농촌 지역 특성	
1)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11
2) 농촌 면 지역 인구 현황	12
3) 농촌 면 지역 구조적 특성	15
2. 농촌이주청년 정착 과제	
1) 청년층 귀농·귀촌 현황	17
2) 귀농·귀촌 유형과 이유	18
3) 귀농·귀촌 가구 소득과 경제 활동의 어려움	20
3. 소결	
1) 농촌 생활권 단위 정책 접근의 필요성 확인	22
2) 새로운 경제의 상상과 지역문제 해결 연계	22
3) 농촌 이주 초기 자기 모색과 지역 학습 과정 필요	23

Ⅲ . 농촌이주청년 관련 정책 사업	
1. 지역 단위 청년정책의 확대·발전	25
2. 충청남도 청년정책 현황 및 면 지역 활용 가능성 검토	
1) 일자리 분야	27
2) 주거 분야	31
3) 교육 분야	33
4) 복지·문화 분야	34
5) 참여·권리 분야	36
3. 소결	
1) 청년정책의 진일보와 개별 정책 추진의 한계	38
2) 농촌 지역사회 주체의 통합적·포괄적 지원 필요	38
Ⅳ. 국내외 농촌이주청년 지원 사례	
1. 국외 사례	
1) 유럽: EU 농촌개발프로그램과 청년	41
2)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44
3) 일본: 노토유학	46
4) 일본: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50
2. 국내 사례	
1) 충남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53
1)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시범마을	64
3. 소결	
1) 다양한 농촌 지역 탐색과 학습 기회 제공 확대	73
2) 농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청년 정착 지원과 교육 제공	74
3)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에 바탕한 농촌 지역 청(소)년 지원 주체 양성	75
Ⅴ. 결론 및 제언	
1. 충남 농촌이주청년 정착과 이주 진작을 위한 정책 과제	
1) 생활권 단위 농촌이주청년 지원 주체 조직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77
1)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연계	78
2. 충남 농촌이주청년 정착과 이주 진작을 위한 시범사업 제언	
1) 면 단위 청(소)년 활동 지원 네트워크 구축	79
1) 면 단위 청(소)년 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80
< 참고문헌 >	
	85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청년정책의 확대와 발전, 한계와 과제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주거와 열악한 경제적 기반 등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이다. 청년의 삶 전반의 어려움과 그 사회구조적 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몇 년 동안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됐다. 각 부처, 지자체마다 제각각 추진되던 청년정책 및 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발족했다.

과소화와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에서는 인구 재생산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년 청년정책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2021년에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비전으로 삼고 5대 분야 74개 과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정책 추진 방향과 체계, 내용 개선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청년정책 기획은 '나이주의'¹⁾에 근거해 청년문제를 청년 개인의 문제로 좁혀서 접근한다. 또한 청년을 지역 정주, 인구 재생산, 지방 활성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출산을 제고, 일자리 확대 중심의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할뿐더러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평등과 불안정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세대와 계층이 마주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나.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이주청년 지원

청년세대의 귀농·귀촌이 꾸준하다.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귀농 가구주가 10.9%, 귀촌인이 47.9%를 차지한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남도는 귀농어·귀촌 선호 지역이다. 2020년 전체 귀농 가구의 11.9%, 귀어 가구의 31.3%, 귀촌 가구의 10.3%가

1) 나이주의(ageism)은 특정 연령대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일컫는다. 연령차별이라고도 한다.

충남으로 이주했다.

경제성장 정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농업 분야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다.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탈도시화 경향, 농어촌 지향 문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 자기주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특성과 욕구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은 읍·동 지역과 면 지역의 정주환경과 생활양식의 차이가 크다. 각종 기초생활 인프라는 읍·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소비는 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진다. 면내에서는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많다. 인구수 역시 큰 차이가 난다. 대부분 청년정책은 시군 지자체 단위로 기획, 추진되다보니 다수의 지역 내 대학생이나 읍·동 지역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자연스럽게 면 지역 청년의 소외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촌 지역 연고와 경험, 자산이 없는 이주 청년의 경우에는 지역 정착에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다. 열악한 정주환경에 더해 도시와는 상이한 문화와 정서가 이주 초기 갈등과 혼란, 과도한 비용 소모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다. 농촌이주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단위 지원체계의 필요

그동안 다수의 귀농·귀촌 정책, 지역 청년정책이 수립 추진되었지만, 정책성과의 정성적 평가와 추진체계 검토는 미흡했다. 나열식 정책 시행과 행정 중심적 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돕기 위해서는 이주 전후 정착 전 과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청년이 살아갈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청년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에 주목해야 한다. 즉, 농촌이주청년 지원은 청년이 스스로 자기 삶의 경로를 탐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학습과 기회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농촌이주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및 이주 진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 그동안 지역 청년 연구와 지원 정책, 지역의 경험을 정리하고 농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지역 단위에서 농촌이주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지방의 청년정책 연구는 대개 인구정책에서 출발한다. 소멸 위기의 지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 청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들이 지역에 잘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골자는 일자리 제공이나 창업지원,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이 된다. 청년은 지원 대상으로만 남는다. 이러한 경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주청년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촌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이주청년 지원을 다룬 선행연구를 먼저 소개한다. 이들 연구의 성과를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1) 삼선재단, 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2015년 삼선재단을 비롯하여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문화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등 농촌 지역, 청년과 관련 활동을 하는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청년과 지역사회가 농적 가치²⁾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미 귀농·귀촌을 했거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과 농촌 지역에서 이주청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온 멘토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지역살이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짚어내고 젊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행정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귀농 귀촌 현상을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로 '틈', '농적가치', '비빌언덕', '플랫폼'을 꼽았다. 농촌 지역이 도시와는 다른 탈자본화된 삶과 새로운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틈'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농사를 접해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농적 지향을 갖고 귀농·귀촌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었던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농적 가치'를 발견하고 확장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또 기반과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농촌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즉 비빌언덕³⁾, 완충지가 중요하다. 또 청년이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이주하기까지 지역의 진입을 돕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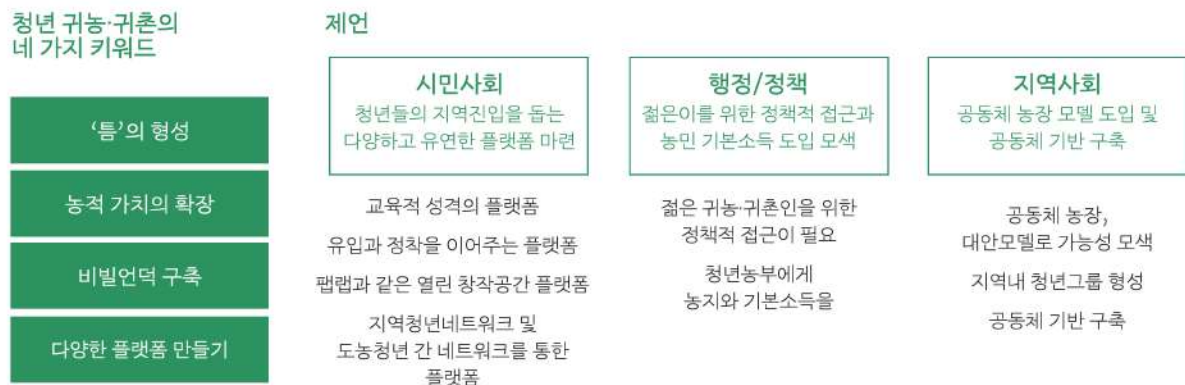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행정(정책),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는 청년들의 지역진입을 돕는 다양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은 지역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교육, 유입과 정착 단계의 연계, 열린 창작공간 조성, 도농 간/지역 간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행정은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유입되고 순환하

2) 반드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촌이나 도시라는 물리적 거주 공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농(農)'을 삶의 중심 가치로 두고 살고자 하는 태도와 공동체적 삶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삼선재단, 2015)

3)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빌 수 있다'는 의미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정서적, 물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의 배움과 성장, 정착 등을 지켜보며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삼선재단, 2015)

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자산기반이 취약한 청년 귀농인의 경우 농지와 기본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의 욕구와 지역의 필요가 잘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지역사회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완충지로서 공동체 농장을 시도해볼 수도 있고 지역 내 청년 그룹을 형성하는 등 지역 내 ‘비밀언덕’을 구축하고 지역 자체가 이주 청년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림 1-1]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주요 내용 (삼선재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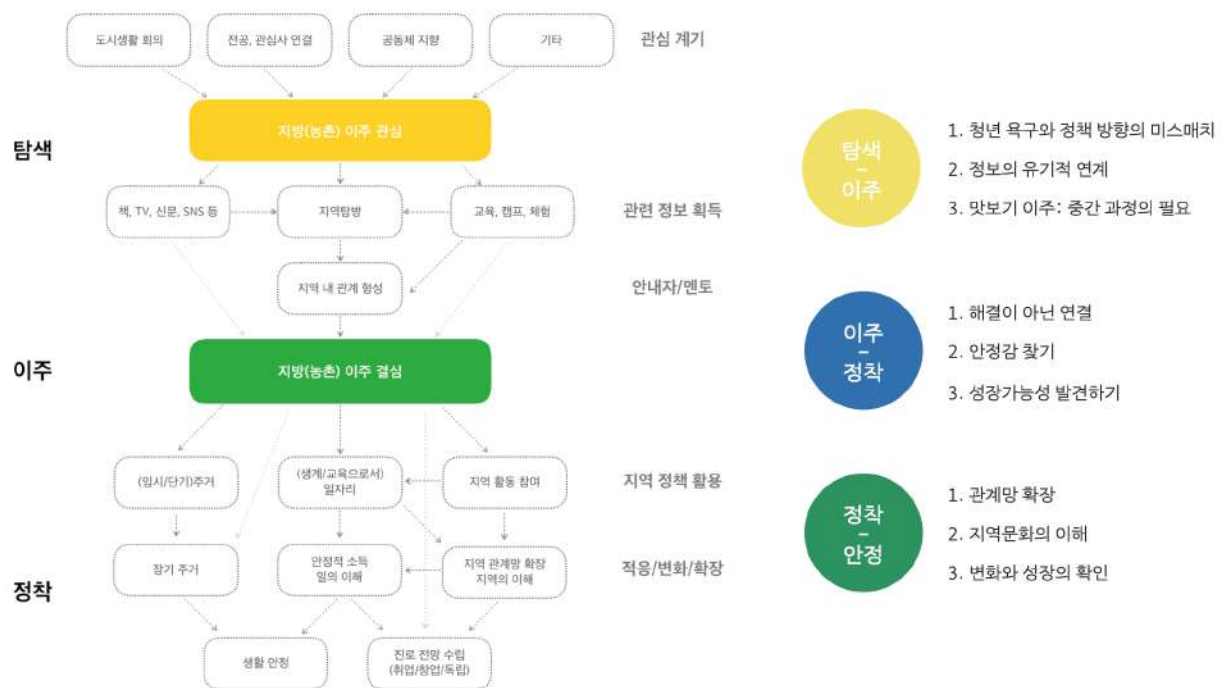
2) 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마을학회 일소공도에서는 2018년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단편적·단기적·성과주의적' 청년 지원 정책 기획을 비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책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는지, 관련된 청년이나 지역사회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지방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을 인터뷰해서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경험을 분석한 후 탐색, 이주, 정착 단계별로 각 단계의 과업과 필요 자원을 확인했다. 청년이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갖게 된 때부터 이주해서 자기 삶의 진로와 전망을 찾는 일련의 전 과정을 '청년의 지방 이주'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계별로 주거, 일자리, 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정책 사업도 필요하지만, 개별 기획이나 정책사업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과제임을 발견했다. 청년이 이주 후 지역에서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계망을 확장하고 지역 문화를 이해하며 자기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지역 자원과 정보를 연결하고 안내하면서 청년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지역사회의 멘토 또는 ‘비밀언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내용과 관계의 형태가 곧 청년의 지방 이주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기능과 구조가 된다.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 실제적 참여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5개 지역 7개 그룹을 조사했다. 지역사회의 자생적 실천 사례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의 공통 과제를 도출했다. 첫째, 청년 지방 이주 및 정착 지원 과정은 단계적·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정책사업의 기획과 실행, 평가에 관여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과 행정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수평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 발전과 청년의 이주 정착 지원에 관해 고민하고 배우는 과정, 즉 학습을 통해 지역 내 '비밀언덕'을 만들어 내고 연결망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1-2]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 과정과 단계별 과제 시사점 (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3) 듣는연구소,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현황 연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지역교류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면서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지역 간 협력관계 구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진행했다. 선행연구와 유사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지역 사례 조사 및 이주 청년 심층 면담을 통해서 청년 이주와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 여건과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지역교류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에서는 이주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 핵심 요소를 관계, 생계, 공간으로 구분하고 지역사회 및 청년의 정서적 요소를 덧붙였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이주기와 정착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며, 각 요소는 상호지지적이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 청년 정착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항목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현황 점검표를 제시했다.

[표 1 -1] 이주청년 정착과정 핵심요소의 단계별 변화 (듣는연구소, 2019)

핵심요소		관계		생계		공간	정서	
		커뮤니티 형성	주민되기	생존을 위한 일	자아실현을 위한 일	주거와 활동 공간	청년의 정서	지역의 정서
단계별 주요 과정	이주기	적응과 생존에 필요한 관계 얻기	지역에 소개되기	생존과 적응 돕는 일시적, 작은, 다양한 일	청년재능과 지역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 탐색	지역에 존재하기 위한 임시 공간 확보	탐색과 적응	환대의 분위기
	정착기	취향과 처지를 공유하는 지지망 형성	주민으로 목소리 내기	안정적 생계유지방안 모색	주체적 활동 펼칠 장 형성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거점 마련	성장과 성취감 확인	이문화 포용과 미래지향적 변화

[표 1 -2] 이주청년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목록 (듣는연구소, 2019)

A. 관계 기반		B. 일/생계 기반		C. 공간 기반		D. 정서 기반	
A1	지역과 청년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매개자가 존재한다	B1	이주청년이 지역 정보와 관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존재한다	C1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집과 땅이 있다	D1	청년이 지방에 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A2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풍부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용이하다	B2	청년이 자기 적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다	C2	청년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들(공간, 땅, 예산 등)이 존재하고 이를 내어줄 수 있다	D2	가부장적 문화(나이주의, 성차별 등)가 적다
A3	청년이 주민으로서 수평적으로 소개될 위치나 역할, 기회가 있다	B3	이주 청년이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가 가능하다	C3	아름답고 여유로운 지역 경관과 생태환경이 보존되고 있다	D3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준비하는 리더가 있다
A4	청년이 접속할 커뮤니티가 다양하고 선택 가능하다	B4	이주 청년이 다양한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D4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활동한다
A5	청년이 공적인 자원에 접속할 수 있고, 정책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B5	공정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행정이나 지역사회가 노력한다			D5	행정이 청년의 생존에 관심 갖고 조력한다

연구는 또한 이주청년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3개 지역 조사와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지역교류형 일자리 사업 방향과 지역사회 사회적 기반 구축에 관한 제안을 정리했다. 이주청년을 맞이하는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으로 다음 세대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내어받은 공간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청년 이주'라는 배경적 맥락에서 해석되는 '사회적 기반'을 '사회적 자본(관계적 자본)'과 '사회적 인프라(물적 자본)'의 합으로 보고 지역 사회에서 이 두 자원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이주청년들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변화해간다. 이주청년뿐 아니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도 지역을 제대로 알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방적 생태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이주청년들이 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주청년들이 지역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 겹겹의 안전망이 있을수록 좋다. 이러한 안전망은 이주청년 스스로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4) 시사점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의 농촌 이주를 단순한 선택과 이벤트가 아니라 농촌에 대한 관심과 탐색, 지역으로의 이주와 모색, 지역사회 정착과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이주청년에 대한 지원 역시 장기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단계별로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공통으로 주장한다.

이주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사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년을 맞이하는 지역사회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주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토대는 지역사회 공동의 논의와 실천의 장에서 만들어진다. 이를 각각 '비빌언덕'과 '플랫폼', '사회적 인프라', '사회적 기반'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원 주체가 지역 내 자원을 끌어내고 조정하는 한편,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을 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지역사회 지원 주체를 형성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또한 이주청년 지원은 꼭 청년만을 위함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역 고유의 교육적 역량과 물질적 기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준비는 지역의 미래, 다음 세대의 일과 삶을 생각하는 시민의 당연한 과제이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본 연구의 기본 전제로 삼는다.

3. 연구의 분석틀

1) 수도권 외 '지방'에서 농촌 '면' 단위 지역으로 접근하기

그동안 지역 청년정책과 관련 연구는 대도시 및 수도권과 대별되는 '지방' 차원에서 논의됐다. 도시에 비해 작은 시장과 적은 일자리, 열악한 문화교육복지 서비스 등 지역 여건에 대한 강조와 인구 감소 방지와 청년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은 모든 지역 청년정책의 공통분모이다. 하지만 같은 지방이라도 시와 군이 다르고 읍과 면, 동 지역 여건과 상황은 현격히 다르

다. 이러한 지역의 이질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농촌 면 지역의 소외를 낳는다.

본 연구는 충남 시민의 포괄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혁신을 목표로 하는 '모두의 충남'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충남 내 소외집단의 생활 여건 개선이 목표인 만큼 연구 범위를 농촌 '면' 지역으로 좁힌다. 그동안 농촌 면 단위를 범위로 한정해 청년연구는 없었다. 농촌 '면'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드러내고, 기존 정책과 다른 기획과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2) '청년의 문제'에서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기

지역뿐 아니라 청년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층위의 욕구와 상황의 차이가 존재한다.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도 20대인지 30대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귀농인지 귀촌인지, 농촌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또 어떤 기대와 지향을 가지고 농촌으로 이주해왔느냐에 따라 정책 요구가 다르다. 이를 모두 '청년'으로 묶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한편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이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 다수는 그 지역 주민들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 역으로 지역주민이 소외된다. 청년을 자원의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기 쉽고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세대를 넘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괄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청년을 위한(for youth)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이 함께(with youth)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때 청년은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된다.

3) '무엇을 할까'에서 '어떻게 할까'로 질문을 전환하기

농촌이주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선행연구에서 어느 정도 확인했다.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가 요구되는 현 상황은 정책 자원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주체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라고 볼 수 있다. 정책요구를 개별 정책이나 단위 사업 패키지로 대응하는 것보다 정책 사업을 지역에서 연속적이고 순차적으로 기획하고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할 일과 민간에서 할 일, 협력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기존 농촌 지역 단체 및 주민 조직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5.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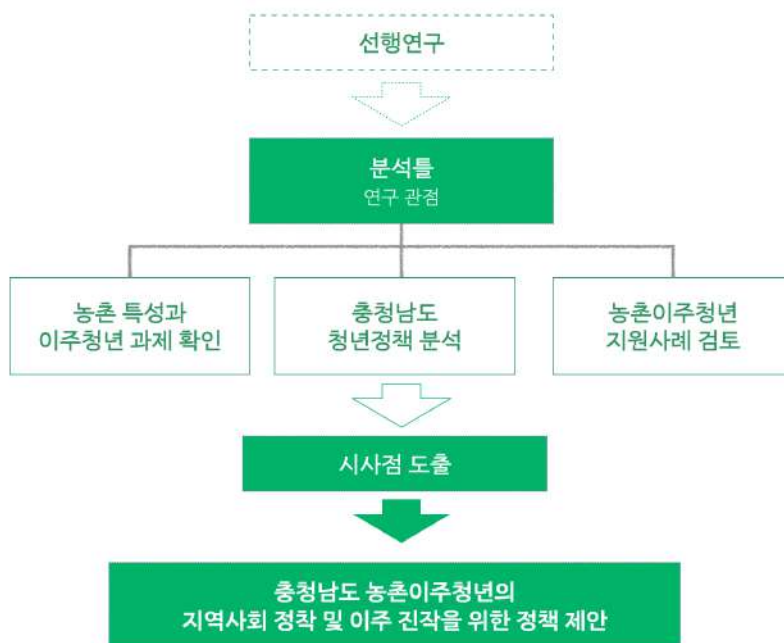
첫째, 충청남도 농촌 면 지역 특성과 그 특성을 고려한 농촌이주청년 정착 과제를 확인한다.

둘째, 지역의 청년정책을 일별하고 농촌 면 지역 이주 청년과 지역사회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타 지역 면 단위 청년 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농촌이주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지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1-3] 연구 흐름도



2) 연구 방법

가. 전문가 회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농촌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개인 면담을 통해 정책 요구를 도출했기 때문에 추가로 청년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지역 청년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와 정책 기획에 관여하고 실행하는 지역 활동가로 자문진을 구성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을 설계하고 지원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기존 지역 청년연구와 활동 경험을 정

리하고, 농촌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진 외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주영 완주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김진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사무 국장, 우성희 듣는연구소 대표, 이정봉 완주군 청년 연구자(가나다 순)가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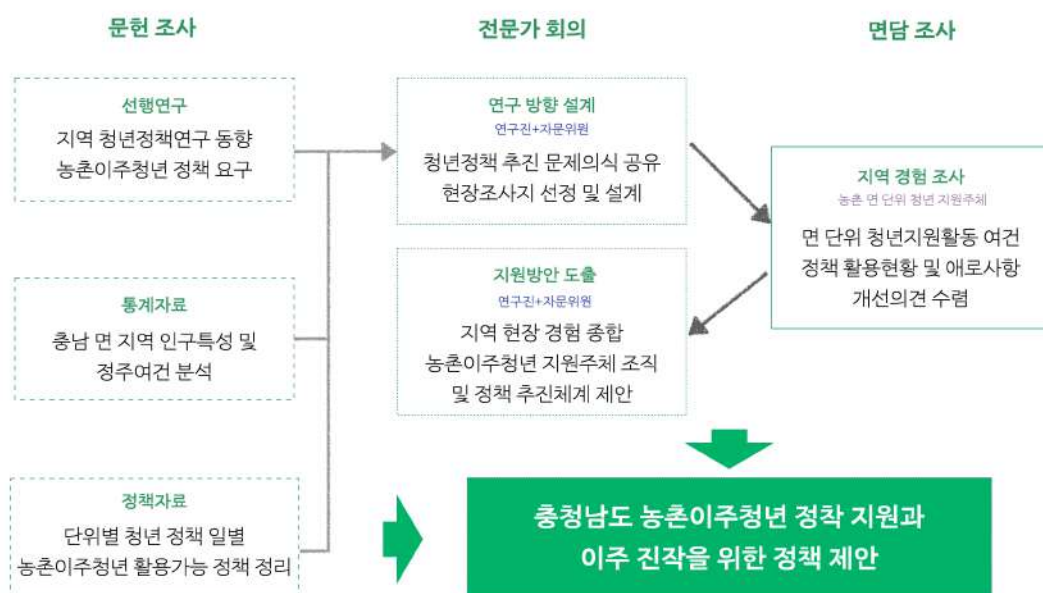
나. 문헌 조사

지역 청년정책 연구 동향과 농촌이주청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리했다. 또한 농 촌 면 단위 특성과 정주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조사했다. 충남 지역 청년정책을 정리하고 농촌이주청년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다. 면담 조사

농촌 면 단위 청년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2개 지역 사례를 조사했다. 직접 지역을 방문해서 지원 주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면 단위 청년지원 활 동 여건과 정책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들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사례는 김정혁 (주)자이언트 대표와 김혜진 삶기술학교 공동체장을 만났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시범마을’ 사례는 의성군이웃사촌지원센터 유정규 센터장과 민재희 도농교류팀장을 만났다.

[그림 1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Ⅱ. 농촌 지역 특성과 이주청년 정착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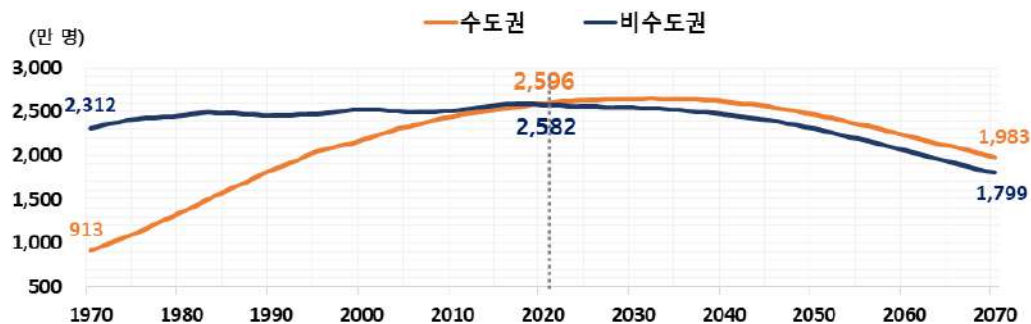
1. 농촌 지역 특성

1)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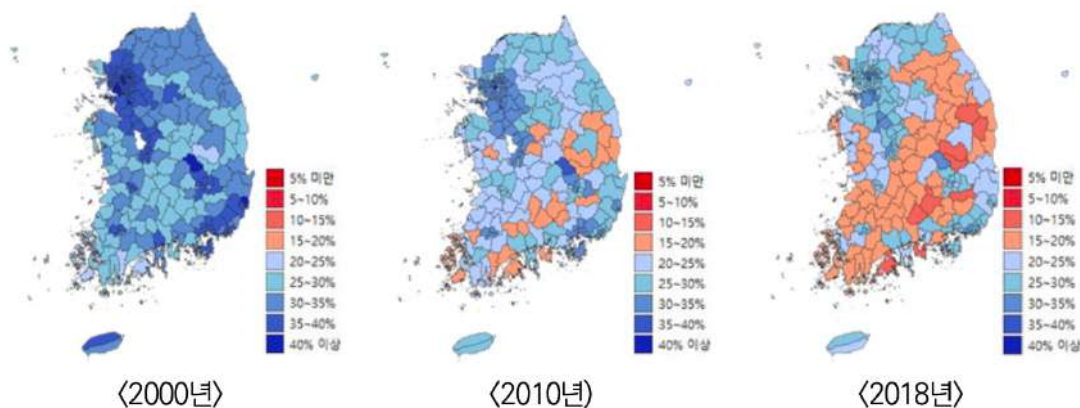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2020년 통계 작성 이후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했다. 2017년부터 이미 고령 인구수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해서 인구구조가 역전되기 시작했다.(통계청, 2019)

한편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 확대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의 국토 면적은 11.5%임에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한다. 2020년 7월 1일 기준 수도권 2,596만 명, 비수도권 2,582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통계청, 2020)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뿐 아니라 급격한 고령 인구의 증가와 20~30대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구조 역시 악화되고 있다.

[그림 II-1]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1970~2070 (통계청, 2020)



[그림 II-2] 20~30대 청년인구의 연도별 비율 변화 (박진경·김도형, 2020)



충남에는 15개 시군이 있다. 이 가운데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5개 시, 1개 군이며 나머지 3개 시, 6개 군은 인구가 감소했다.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홍성군을 제외하면 농촌 지역 군 단위 지자체는 모두 인구가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1] 지역규모별 자치단체 및 지역인구감소 지역 (박진경·김도형, 2020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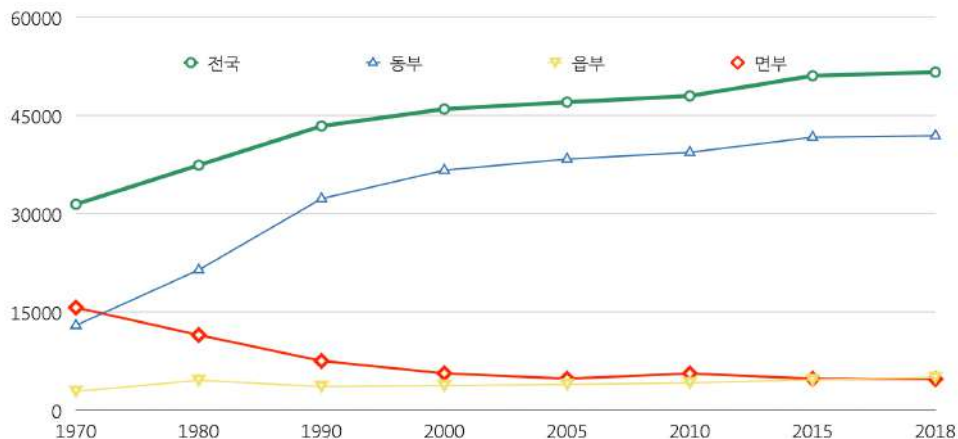
인구 규모별 자치단체	농촌형(군)		도농복합형(시)	
	인구 5만 이상	5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50만 미만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청양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인구증가 지역	홍성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인구감소 지역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공주, 보령, 논산	

2) 농촌 면 지역 인구 현황

도시, 도농복합시(시) 지역과 농촌(군) 지역을 더 세분화하면 동 지역과 읍, 면 지역으로 나뉘볼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동 2,089개, 읍 232개, 면 1,180개이다.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만 해도 면부 인구가 동부 인구보다 많았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1970년 약 1,565만 명에서 2018년 473만 명으로 1/3 이상 감소했다. 반면 동부 인구는 약 1,293만 명에서 4,168만 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읍부 인구는 약 1.7배 증가했다.

[표 II-2 / 그림 II-3] 동·읍·면 인구변동 추이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에서 재인용)

단위: 천명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18
전국	31,435	37,407	43,390	45,985	47,041	47,991	51,069	51,630
동부	12,929	21,409	32,290	36,642	38,338	39,363	41,678	41,915
읍부	2,850	4,537	3,602	3,742	3,923	4,149	4,617	4,984
면부	15,654	11,461	7,498	5,601	4,781	5,578	4,775	4,730



인구변동뿐만 아니라 인구밀도, 인구 중위연령, 고령화 추이에서도 동/읍부 지역과 면부의 차이가 명백하다. 인구밀도 변화를 보면 면부 지역에서만 감소세가 나타난다. 읍 지역 인구밀도는 연평균 1.05%씩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읍부는 면부 인구 밀도의 약 5.1배, 동부는 무려 약 61.5배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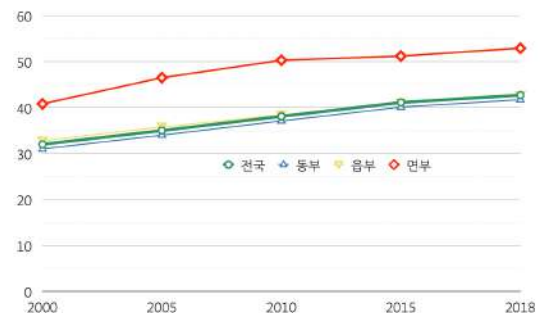
[표 II-3] 동·읍·면 인구밀도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재구성)

단위: 명/km, %	2006	2010	2015	2016	2019	연평균 증감률 (2006~2019)	비교
동부	3,879.6	3,906.6	3,941.1	3,944.3	3,929.2	0.10	61.5
읍부	283.1	296.3	307.0	317.3	324.4	1.05	5.1
면부	70.6	67.8	65.8	65.6	63.9	-0.76	1

인구 중위 연령 및 고령화 추이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중위연령과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추세와 정도가 동부, 읍부 지역은 비슷하지만 면부 지역에서 유난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그 값이 크게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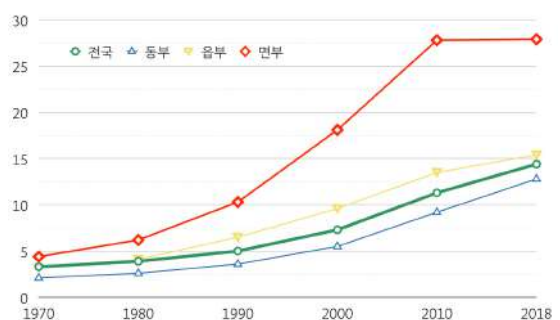
[표/그림 II-4] 동·읍·면 인구 중위 연령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에서 재인용 재구성)

단위: 세	2000	2005	2010	2015	2018	비교
전국	32.0	35.0	38.1	41.1	42.7	0
동부	31.0	34.0	37.1	40.1	41.7	-1.0
읍부	32.8	35.8	38.4	41.1	42.6	-0.1
면부	40.8	46.5	50.3	51.2	52.9	10.2



[표/그림 II-5] 동·읍·면 인구 고령화 추이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에서 재인용 재구성)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전국	3.3	3.9	5.0	7.3	11.3	14.4
동부	2.1	2.6	3.6	5.5	9.2	12.8
읍부	3.2	4.1	6.5	9.6	13.5	15.4
면부	4.4	6.1	10.3	18.1	27.8	27.9



동읍면 청년인구 및 비율도 크게 차이 난다. 동부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26.9%를 차지하는 반면, 면부에서는 14.0%로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표 II-6] 동·읍·면 인구밀도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재구성)

단위: 명, %	전체인구	인구 평균값	청년인구	청년인구 평균값	청년인구 비율의 평균값
동부	41,707,746	19,965	11,687,207	5,595	26.9%
읍부	5,043,081	21,737	1,206,073	5,199	21.3%
면부	4,598,433	3,920	801,182	683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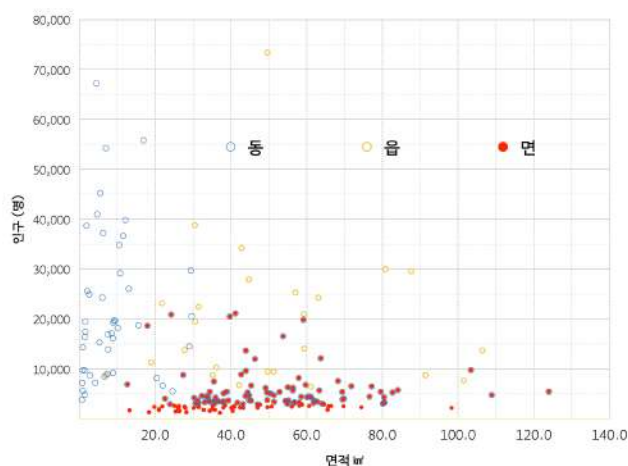
충남 15개 시군에는 46개 법정동(행정동 123개), 25개 읍, 136개 면 지역이 있다. 총 207개 읍면동의 면적, 인구, 세대, 밀도, 고령화율, 연령별 인구를 비교해보았다. 동 지역은 충남 전체 면적의 4.9%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6.7%가 거주한다. 반면 면부는 충남 전체의 79.5% 면적을 차지하고 29.8%의 인구가 산다. 동부의 인구밀도는 면부의 약 46배이다.

[표 II-7] 충남 읍면동 현황 (충남통계연보, 2020: 2019년말 기준)

	전체면적	평균면적	전체인구	평균인구	인구 중간값	세대당 인구	밀도	고령화율 (65세 이상)	청년인구 (20~39세)
동부 N=46	402km ² 4.9%	8.7km ²	991,430명 46.7%	21,553명	18,161명	2.29명	5241.1명/km ²	14.0%	27.2%
읍부 N=25	1,287km ² 15.6%	51.5km ²	498,677명 23.5%	19,947명	19,485명	2.15명	501.4명/km ²	22.7%	20.9%
면부 N=136	6,546km ² 79.5%	48.1km ²	634,123명 29.8%	4,663명	3,495명	1.97명	113.5명/km ²	36.5%	14.6%

충남 읍면동 지역을 인구와 면적으로 배치해보면 46개 동부 지역과 25개 읍부 지역은 각 지역 간 인구와 면적 차이가 있어서 넓게 흩어져 있다. 반면 136개 면부 지역은 인구 5,000명 이하 하단에 밀집해 있다. 고령화율은 동부에 비해 면부가 2.6배 높고 청년 인구 비율은 동부가 면부보다 약 1.9배 높다.

[그림 II-6] 충남 읍면동 인구 및 면적 분포
(충남통계연보, 2020: 2019년말 기준)



[그림 II-7] 충남 읍면동 고령화율과 청년인구비율
(충남통계연보, 2020: 2019년말 기준)



아산시나 계룡시, 당진시 등 몇몇 대도시에 인접해 있거나 공단, 신도시가 위치하면서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면이 9개⁴⁾가 있다. 2만 명 이상도 3개⁵⁾나 된다. 인구 1만 명 이상이

4) 아산시 둔포면, 아산시 탕정면, 아산시 신창면, 아산시 음봉면, 계룡시 엄사면, 당진시 신평면, 서산시 성연면, 당진시 송산면, 부여군 규암면 순으로 이상 9개 면이 인구 1만 명 이상이다.

5) 아산시 둔포면이 인구 21,121명, 아산시 탕정면이 20,891명, 아산시 신창면이 인구 20,477명이다. 그 다음으로 아산시 음봉면이 19,834명으로 인구 상위 4개면이 모두 아산에 있다.

되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면부 9개 지역을 제외하고 다시 127개 면부의 인구와 밀도, 고령화율과 청년인구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인구 중간값은 3,300여 명, 밀도는 87.4%다.

[표 II-7] 충남 읍면동 현황 (충남통계연보, 2020: 2019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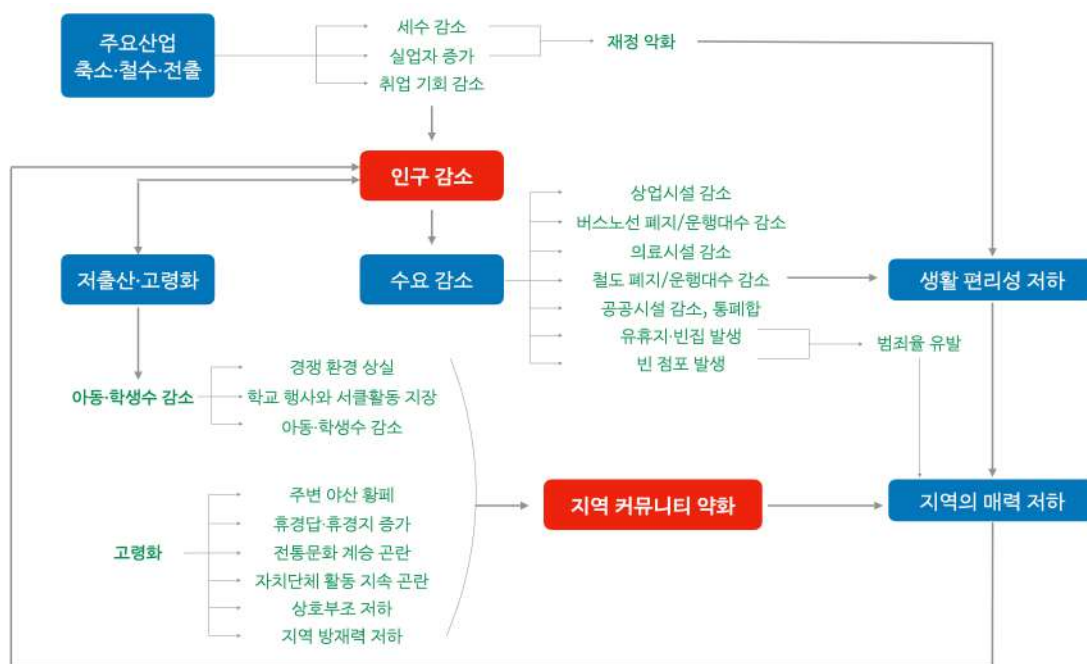
	평균면적	평균인구	인구 중간값	세대당 인구	밀도	고령화율 (65세 이상)	청년인구 (20~39세)
면부1 N=136	48.1㎢	4,663명	3,495명 홍성 홍동/구항면	1.97명	113.5명/㎢	36.5%	14.6%
면부2 N=127	48.5㎢	3,771명	3,306명 공주 신평면	1.95명	87.4명/㎢	38.1%	13.7%

3) 농촌 면 지역 구조적 특성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같은 농촌 지역이라도 읍부와 면부 지역의 이질성이 동부와 읍부 차이보다 크며 면부의 저밀도와 공간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부와 읍부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표 II-3] 면부의 과소화·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문제만이 아니다. 각종 서비스 수요의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의 약화, 주요산업의 축소·철수·전출, 생활 편의성 저하, 지역 매력 저하로 이어진다. 인구감소를 축으로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림 II-8] 인구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구조

(타히라 노부히사, 2005; 박진경·이도형, 2020에서 재인용)



일례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과 장곡면의 기본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홍성읍과 장곡면은 중심지간 거리가 11km에 불과하다. 면적은 장곡면이 홍성읍보다 1.8배 크지만 인구는 홍성읍이 12.6배 많다. 고령화율은 장곡면이 2.7배 높고, 초중고 학생수는 홍성읍이 1,215배 많다. 한해 출생인구는 홍성읍이 26배 많지만, 사망자 수는 5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표 II-7] 홍성군내 홍성읍과 장곡면의 비교 (홍성군통계연보, 2020: 2019년말 기준)

	면적 (km)	인구 (명)	인구밀도 (명/km)	고령화율 (%)	인구동태 출생:사망 (명)	사업체 (개)	종사자수 (명)	식품접객 업소 ⁶⁾ (개)	공중위생 영업소 ⁷⁾ (개)	노인복지 시설 ⁸⁾ (개)	병원	어린이집 (개)	초중고 수/재학 생수 (개)	공무원 (명)
홍성읍	30.47	39,389	1,274	15.9	158:279	4,376	19,875	1,056	315	21	35	33	9/4863	41
장곡면	54.93	3,137	55	42.4	6:54	111	365	16	3	0	0	1	1/46	17
비교	1.8배	12.6배	23.2배	2.7배	26:5	39.4배	54.5배	66배	105배	-	-	33	9 / 1,215배	2.4배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경제활동과 생활 인프라의 차이로 이어진다. 경제사업체가 홍성읍에 4,376개, 장곡면에 11개로 홍성읍이 39.4배이며 종사자수는 54.5배 차이가 난다. 즉 면에 있는 사업체는 읍에 비해 평균적으로 규모가 작다. 장곡면에 소재한 111개 사업체 중 86.5%인 96개 사업체가 1~4인 고용업체이다. 10명 이상 고용업체는 6개에 불과하다. 또한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5개로 가장 많다. 이러한 협회 및 단체는 실제로 상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어서 제조업 20개, 숙박 및 음식점업 17개, 도소매업이 16개를 차지한다. 소재한 사업체의 산업 분야가 다양하지 않다. 노인인구 비율이 장곡면이 높지만, 마을별 노인회관을 제외하면 노인여가시설이나 관련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홍성읍 소재 병원을 검색해보면 35개가 나오지만, 장곡면은 보건지소 외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 장곡면에는 장곡초등학교 1개만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중학교 1개와 분교 2개가 폐교되었다. 장곡면에 있는 중고등학생은 인근 홍동면, 홍성읍과 광천읍으로 통학한다. 따라서 읍면 소재 학교의 재학생수는 1,215배가 차이가 난다 .

이러한 농촌 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청년의 취창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분명 한계가 있다. 농촌 지역에는 청년을 고용할만한 사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창업 역시 매우 어렵다.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서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 비용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6) 식품접객업소 해당사업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7) 공중위생영업소 해당사업장: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영업소, 위생처리업 등

8) 노인회관 제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2. 농촌이주청년 정착 과제

1) 청년층 귀농·귀촌 현황

2020년 귀농 가구는 12,489가구로 전년보다 1,067가구(9.3%) 늘었다. 2013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 귀농하고 있으며 동반 가구원 수를 더하면 귀농 가구원은 16,000명~20,000명 상당이다. 그중 30대 이하 귀농인은 1,100~1,300명가량으로 꾸준히 10%를 웃돌고 있다.

[표 II -8/그림 II -9] 연도별 연령별 귀농인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30대 이하	1,174	1,123	1,168	1,353	1,340	1,356	1,212	1,370
40대	2,348	2,412	2,428	2,386	2,273	2,015	1,752	1,791
50대	4,077	4,365	4,875	5,202	4,956	4,456	4,291	4,402
60대	2,186	2,377	2,954	3,306	3,465	3,382	3,490	4,084
70대 이상	527	627	689	772	729	752	759	923
계	10,312	10,904	12,114	13,019	12,763	12,055	11,504	12,570



2013년 이후로 매년 40만 명 이상 귀촌을 하고 있다. 귀촌인의 경우에는 귀촌 가구주 외 가구원이 다 포함된다. 2020년의 경우에는 20대 이하 비율이 26.3%, 30대 비율이 22.7%로 절반에 가깝다.

[표 II -9/그림 II -10] 연도별 연령별 귀촌인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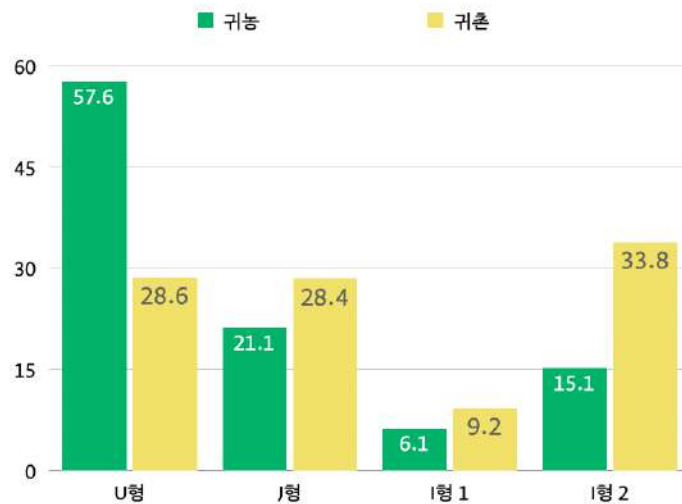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20대 이하	103,102	105,895	123,822	124,888	132,392	125,272	119,542	125,627
30대	110,645	116,231	115,743	118,525	121,073	111,038	101,144	103,285
40대	73,237	80,996	81,146	80,890	84,028	78,500	73,035	78,384
50대	64,213	72,765	77,076	78,304	81,327	78,422	74,794	79,980
60대	31,938	36,935	42,047	45,107	48,994	49,423	47,964	57,325
70대 이상	22,317	26,713	26,944	27,775	29,373	29,819	27,985	32,521
계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444,464	477,122



2) 귀농·귀촌 유형과 이유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4,066가구를 조사한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U형⁹⁾ 귀농·귀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하는 I-2형 귀농·귀촌은 40대에서 가장 높다. 귀촌 가구 33.8% 역시 I-2형에 해당한다. 30대 이하가 50% 가까이 차지하는 귀촌인 특성상 농촌에 연고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II -11] 귀농·귀촌유형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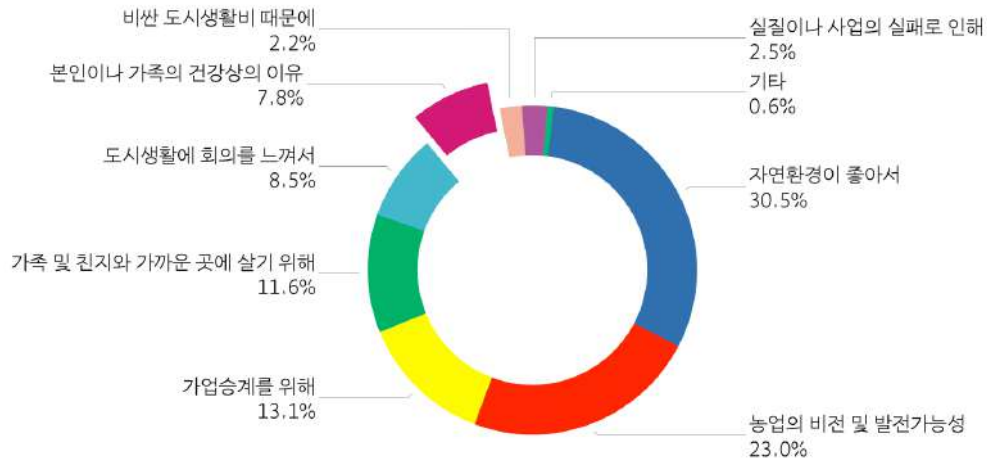


귀농·귀촌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30.5%로 가장 많다.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3.0%로 2순위,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가 13.1%로

9) U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J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I-1형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이며, I-2형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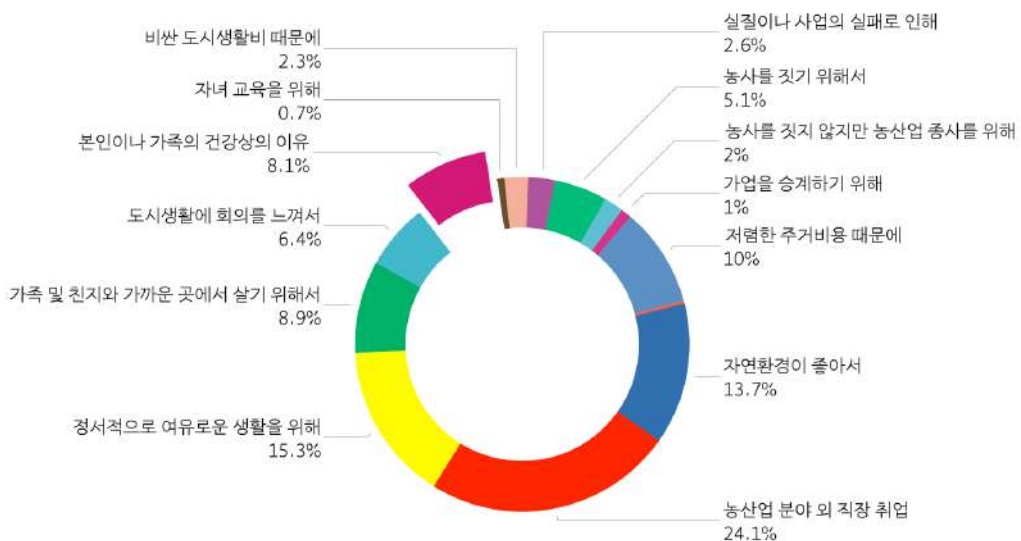
3순위, 가족과 친지 가까이 살기 위해서가 11.6%로 4순위를 차지했다.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가 5번째 답이다. 귀농 가구가 U형이 많은 걸 고려하면 3, 4순위 24.7% 응답이 그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 -12] 귀농 이유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귀촌 이유로는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으로 인한 이주가 24.1%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15.3%, 자연환경이 좋아서 13.7%로 뒤를 이었다. 도시 생활 회의를 느껴서라는 응답 6.4%를 더하면 귀촌인의 약 35.4%가 농업·농촌의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귀촌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 -13] 귀촌 이유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



3) 귀농·귀촌 가구 소득과 경제 활동의 어려움

귀농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첫째 직전 소득의 66%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귀농 5년 차에 약 87% 수준까지 회복한다.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농업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초기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소득 보전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귀농 가구 소득은 농업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이전 소득과 농외소득도 포함한다. 조사 결과 약 50.1% 귀농 가구가 소득을 올리고 자기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농외 경제활동을 수행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직전 소득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더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귀촌 가구 소득은 귀촌 1~2년 차 약 8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90% 내외로 서서히 회복된다. 귀촌 가구 88.5%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일반 직장 취업이 57.8%, 자영업이 20.1%, 농사일이 16.6%, 임시직 16.3%, 비농업 부문 일용직 2.5%, 농업 임금노동 2.4%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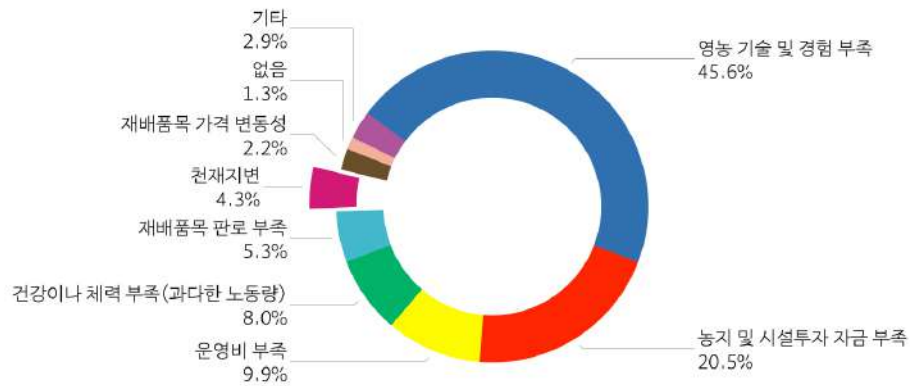
[그림 II-14] 귀농·귀촌 가구소득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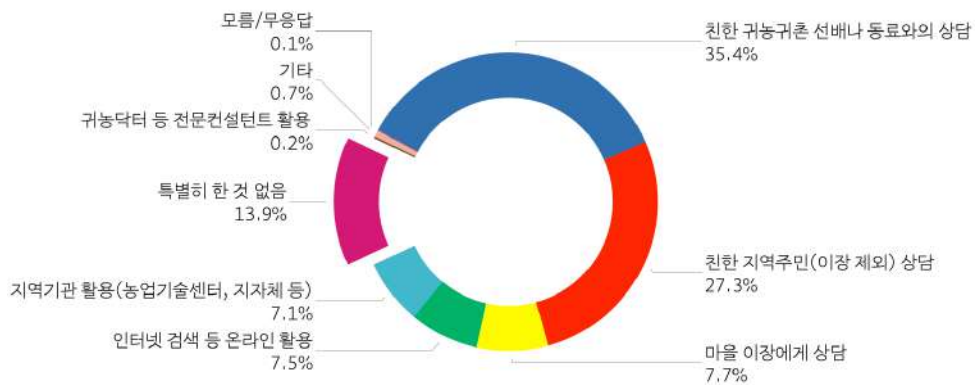
귀농해서 영농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이 45.6%로 꼽혔다. 농사일이 몸에 익지 않아 과다한 노동이나 건강, 체력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8.0%까지 더하면 절반 이상이다. 귀농의 경우 농업 기술과 경험을 쌓고 익히는 교육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농지 및 시설 투자 자금 부족(20.5%), 운영비 부족(9.9%) 답변으로 보아 자산과 연고가 없는 귀농인이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로 부족, 천재지변, 재배 품목 가격 변동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은 불안정한 농업 생산 유통 환경을 반영한다.

영농생활 어려움은 지역 관계망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응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으로 친한 귀농·귀촌 선배나 동료와의 상담이 35.4%, 친한 지역주민 상담이 27.3%, 마을 이장님 상담이 7.7%로 모두 70.4%를 차지한다. 반면 지역기관은 7.1%, 전문컨설팅트 활용은 0.2%에 불과하다.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지원보다 비형식적인 지역 사회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이 귀농인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II -15] 영농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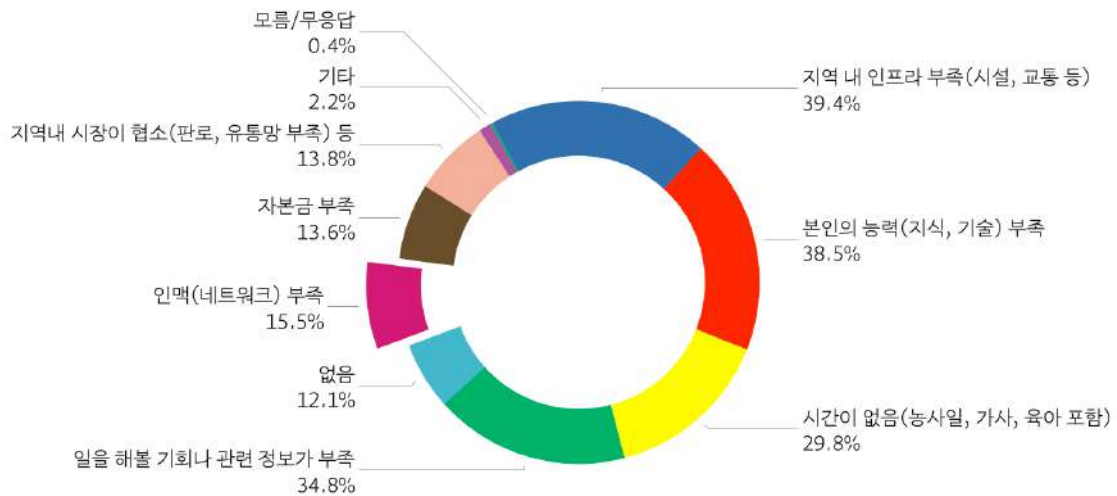
[그림 II -16] 영농생활 어려움 해소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귀촌 후 경제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39.4%)을 꼽았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교통을 비롯, 각종 생활편의 시설 등이 열악한 편이다. 읍이나 가까운 도시 지역으로 나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필요들이 많다. 인구 감소의 악순환 구조 가운데 ‘지역 내 수요(시장)이 협소’(13.8%)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귀촌 가구뿐 아니라 거주 주민, 농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다.

반면 그다음으로 많이 나온 ‘본인의 능력(지식, 기술) 부족’(38.5%)과 ‘시간 부족’(29.8%) 문제는 초기 귀촌인이 지역사회와 새로운 일과 생활에 적응하고 꾸려나가는 과정상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어려움’(34.8%)과 지역 인맥, 네트워크 부족(15.5%)은 초기 귀농·귀촌인, 특히 지역에 연고가 없는 I-2형 귀농·귀촌 유형에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인 경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망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II-15] 귀촌 후 경제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
(농림축산식품부, 2019~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합계 200%)



3. 소결

1) 농촌 생활권 단위 정책 접근의 필요성 확인

기본적인 인구 통계 자료만으로도 농촌 지역 읍부와 면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의 동부와 농촌의 읍부보다 농촌 읍부와 면부 사이의 이질성이 더 크다.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사회적 문제는 정확히 '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지자체 단위에서 정책을 기획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와 가용 자원이 집중된 읍 지역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 면 지역의 농촌 문제는 그대로 산재하고, 점점 주변 도시 동이나 읍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청년정책을 비롯한 각종 농촌 지역정책은 경우에 따라 그 범위를 생활권, 즉 면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경제의 상상과 지역문제 해결 연계

면 소재지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그를 대체할 무엇이 생기지 않는다. 생활편의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의 도입도 도시보다 수요가 적고 비용이 많이 드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거나 배제된다.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 정착, 자립을 도모할 때 고려해야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극도의 저밀도 공간이라는 점이다. 시장경제는 물론 공공서비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모든 서비스 임계량(critical mass)을 공공 정책이나 개

인의 능력, 지역사회의 희생과 봉사로 배우기는 어렵다. 결국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삶의 질은 저하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이주청년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농업 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창업한다고 해도 지역 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외부로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각종 재화와 서비스 구매도 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일시적인 생활 보조나 창업 지원이 농촌 지역 이주청년의 '시작'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정착과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아직 농촌 면 단위 생활권은 대면 사회라는 점이다. 한두 다리를 건너면 대략 아는 사이다. 공통의 정서와 유대감, 협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공간 밀도가 낮으면서도 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농촌 지역에서는 그동안 대부분의 필요를 관계를 통해 해결해왔다. 특히 자연환경과 노동력, 기계나 시설 등 지역 기반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업의 경우엔 이웃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귀농인들이 영농생활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이웃 — 선배 귀농인, 동료, 이장 등 —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결국 공동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고 연대하여 공동자원(common)을 구축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이 유효하다. 필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논의하고 실험하면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자원을 모아서 서비스 임계량 기준을 낮추거나 넘어설 수 있다.

이주청년의 정착과 자립 지원 방식도 마찬가지다. 농촌의 일자리와 경제 활동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만날 때 지속 가능하다. 농촌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청년의 욕구와 재능과 만나면 새로운 일과 삶의 형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 농촌 이주 초기 자기 모색과 지역 학습 과정 필요

그럼 지역사회의 필요와 농촌이주청년의 욕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농촌으로 이주한 배경에는 분명히 개인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 목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주와 동시에 그 욕구가 바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농촌의 현실과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일과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모색의 과정에서 자기 전망이 지역사회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초기 지역에 대한 학습과 안내, 더불어 지역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관계망이 중요하다. 이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농촌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Ⅲ. 농촌이주청년 관련 정책 검토

1. 지역 단위 청년정책의 확대·발전

지역 단위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은 서울시다. 2013년 4월 청년정책 발굴 및 집행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청년일자리허브’를 개관했고, 8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다.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기초한 5개년 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수립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를 아우르는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다(多)정책적 접근을 선언하고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집행과정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했다. 기존 일자리 중심 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청년정책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서복경, 2020)

2015년 1월 서울에 이어 2018년 2월 인천까지 17개 광역 지방정부가 앞다투어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다. 2020년 1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 이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67개 지자체가 청년 기본 조례를 수립했다. 2021년 6월 기준 199개 지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졌다.

[표Ⅲ-1]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 ‘청년기본조례’ 제정 시점
(서복경, 2020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1.6. 검색 결과)

광역기본조례	제정년월	지자체 수	조례있음	조례없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2015.01	25	24	1	-	6	5	4	8	1	1
부산	2017.05	16	12	4	-	2	-	3	5	2	-
대구	2015.12	8	8	0	-	-	-	1	3	3	1
인천	2018.02	10	8	2	-	1	-	2	3	1	1
광주	2015.12	5	5	0	-	1	2	1	0	1	
대전	2016.10	5	5	0	-	2	-	1	2	-	
울산	2017.04	5	5	0	-	-	-	2	1	2	
경기	2015.08	31	30	1	-	4	6	8	12	-	
강원	2017.11	18	11	7	-	-	1	3	3	3	1
충북	2016.05	11	9	2	1	-	3	2	-	2	1
충남	2016.02	15	15	0	-	1	7	6	1	-	
전북	2017.04	14	11	3	-	2	-	2	4	3	
전남	2015.07	22	22	0	1	5	10	5	0	1	
경북	2017.12	23	20	3	-	-	3	6	5	4	2
경남	2016.06	18	15	3	-	1	-	4	7	3	
제주	2016.06					1					
세종	2016.12					1					
종합		226	199	27	2	25	37	50	53	25	7

2018년 대두된 ‘지방소멸’ 담론은 지역 청년정책 확대에 불을 지폈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 저출산 및 인구감소, 특히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다루면서 ‘지방소멸론’을 발표했다. 이를 차용해서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구분됐다. 이는 지역 정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고령화·저출산 극복, 인구감소 방지 일환으로 청년정책이 급부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을 불러들이고 또 떠나지 않게 붙잡아둘 수 있는지, 청년의 일과 삶 전망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었다. ‘지방 청년의 삶’에 주목하면서 지역 간 생활 격차 문제가 드러났다. 도시재생 등 각종 균형발전, 지역개발사업에서 청년 참여가 주요한 사업 목표가 되었다. 출산, 일자리 대책과 더불어 주거, 공간, 교육, 문화, 복지, 교류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다방면의 요구가 등장했고 그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청년 정책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2. 충청남도 청년정책 현황 및 면 지역 활용가능성 검토

충청남도는 2016년 2월 22일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는 5년마다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각 시군 역시 2016년 8월 부여를 시작으로 2019년 5월 예산군까지 15개 시군이 모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표Ⅲ-2] 충청남도 광역 및 시군 청년정책 조례 제정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1.6. 검색 결과)

시군	조례명	청년 정의	제정일	개정일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2016. 2. 22	2020. 12. 30
계룡시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18~39세	2018. 2. 20	2020. 12. 10
공주시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18~39세	2018. 12. 7	2020. 9. 21
금산군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18~34세	2017. 9. 29	-
논산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18~39세	2018. 8. 10	2021. 6. 10
당진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2017. 5. 30	2019. 10. 30
보령시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	18~45세	2018. 5. 10	2020. 8. 20
부여군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18~39세	2016. 8. 12	2021. 3. 17
서산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2018. 11. 20	-

서천군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18~39세	2017. 2. 28	2019. 10.21
아산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2017. 5. 15	2020. 12. 15
예산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2019. 5. 24	2020. 5. 29
천안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2017. 11. 21	2021. 4. 15
청양군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18~45세	2017. 4. 18	2019. 1. 30
태안군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2018. 4. 11	2021. 4. 9
홍성군	홍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18~39세	2017. 5. 30	-

2021년 4월 충청남도는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도 충남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비전으로 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74개 과제를 구성해 총 989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봤다. 우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조직이나 지역 단체, 민간 사업체 등 지역사회가 청년 지원 주체로 참여 가능한 지를 검토했다. 정책 자원이 행정이나 운영기관에서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은 ×, 지역 내 민간에서 주도하거나 참여할 여지가 있는 사업은 ○로 표시했다. 그 다음으로 농촌 면 지역 거주 청년의 정책 활용 가능성 여부를 상/중/하/해당없음/농어업 지원으로 구분했다. 상/중/하의 구분은 앞 장에서 살펴 본대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고용 능력이 있는 기업체가 적은 농촌 면 지역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진이 주관적으로 판단했다. 해당없음은 아예 지원대상이나 사업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농어업 관련 정책은 따로 표시했다.

1) 일자리 분야

[표Ⅲ-3]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목록 - 일자리 분야 (충청남도, 2021 재정리)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운영기관	지역사회 주도·참여 가능 여부	면 지역 활용 가능성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 창출 및 지역 정착 활성화 도모 - 사업 유형에 따른 기업인건비, 청년 인센티브, 기본 및 심화교육, 창업 지원비 등	각 시군 청년일자리 부서	○	상
2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유출 방지, 시군별 채용인원 분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도모 - 사업참여 기업에 인건비 지원, 청년에 인센티브 및 자기계발비 등 지원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참여기업	○	중
3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장려 지원사업	- 창업 초기기업에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 - 사업참여 기업에 인건비 지원, 청년에 인센티브 및 자기계발비 등 지원	충남 테크노파크 /참여기업	○	중
4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책	- 도내 직업계고 졸업생(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	중

	활성화 취업지원	지속가능한 직접일자리 창출 - 사업참여 기업에 인건비 지원, 청년에 인센티브 및 자기계발비 등 지원	일자리진흥원 /참여기업		
5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지역대학 우수인재의 직접적인 채용지원을 통한 고용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 사업참여 기업에 인건비 지원, 청년에 인센티브 및 자기계발비 등 지원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참여기업	○	중
6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 도내 취업 애로 해소 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청년창업 일자리 토대 마련 - 창업자금 최대 1,500만원 직접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창업공간 등 간접지원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	중
7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 청년의 사회 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 제공 - 공익활동단체 활동노하우 현장학습, 지역 공익활동 관련 조사&연구 및 기획사업 운영, 월 인건비 지급	협력사업장 및 충남 공익활동 지원센터	○	상
8	충남형 디지털 뉴딜일자리 청년키움사업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디지털 신성장 분야 교육·훈련 및 일 경험 제공 - 사업참여 기업에 인건비 지원, 청년에 인센티브 및 자기계발비 등 지원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	하
9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활동가로 육성하여 나아가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 - 지원인력 임금 최대 월200만원 지원,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경비 연간 300만원 지원	협력사업장 및 나사렛대학교	○	상
10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	-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우리 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 지원인력 임금 최대 월200만원 지원,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경비 연간 240만원 지원	협력사업장 및 충청남도 시군	○	상
11	충남 일자리 소통공간 잡 카페 운영	-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충남 취·창업카페 운영을 통한 도내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 밀착형 취업서비스 제공 - 1:1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 및 고용정책 정보 제공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	하
12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 도내 대학일자리센터를 지원하여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에 진로지도 및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호서대학교 대학일자리 센터	×	해당 없음
13	청년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 - 노동상담, 권리구제 지원,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추진 등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	해당 없음
14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운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하여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충남개발공사	×	해당 없음
15	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	- 도내 청년과 지역 우수기업 간 상호교류(기업탐방, 채용행사)를 활성화하여 지역기업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기업탐방 및 채용행사 지원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해당 없음
16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 대학 교육의 무역이론을 현장 중심 실무와 접목하여 국제적 무역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소 수출기업체 마케팅 사업 지원 - 사업참여 대학생의 수출기업 마케팅 활동 실습 지원	순천향대학교 GTEP 사업단	×	해당 없음

17	청년농업인 2040 심층컨설팅	- 컨설팅 제공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투자 실패 감소 -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비 지원	충청남도 시군	×	농업
18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 귀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에 진입을 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 구축 - 도시청년 농촌 진입 시 실습농장(멘토)에서 일정기간 영농인턴 실시	시군농업기술 센터	○	농업/상
19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교육	- 농업경영인 발굴 및 농업인력 육성 - 농정이해, 농업환경변화, 기술교육 등 함양 교육	충청남도 시군	×	농업
20	신규후계농 안정 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 후계농의 성공적 농촌 정착 및 독립경영체 성장 기회 제공 - 신규후계농업인에게 멘토링, 워크숍, 스터디그룹, 벤치마킹 등 지원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	농업
21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지원	- 청년농업인 연구 및 복지동아리 지원을 통한 영농정착 - 동아리 개소 당 100~300만원 차등 지급	충청남도 시군	○	농업/상
22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 친환경 청년농부의 맞춤형 생산·유통시설 지원과 멘토링 등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친환경 인력육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	충청남도 시군	×	농업
23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공통)	- 창농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으로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유도 - 독립경영 연차에 따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모니터링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
24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자체)	-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 지원으로 미래 충남농업 경쟁력 강화 -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시설, 장비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
25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 정착 및 농촌 유입 유도 - 신제품개발, 상품화 생산시설 및 기반조성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
26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영농 경험 부족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습득 기회 제공 - 임차기간 최대 3년(연장불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
27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술 경영상태 진단 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청년농업인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
28	브랜드 디딤돌 지원사업	- 기업브랜드 육성 관련 마케팅, 판로, 홍보지원 등을 통한 사업화 역량강화 - 도내 중소 창업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시박람회, 홍보동영상 제작 등 기업 당 300만원 이내 지원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하
29	지역마을 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	- 도시 농촌 지역 마을의 폐창고를 리노베이션하여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 - 마을의 폐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	상
30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 유망 청년창업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마련하여 충남청년창업의 중심역할 수행 - 창업공간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	중
31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 도내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초기 운영자금 공급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충남 신용보증재단	×	중

		- 청년창업가, 예비창업가에게 창업 초기 운영자금 지원(융자추천, 연 이자 2.0% 지원)			
32	전통시장 고령화 극복을 위한 청년상인 육성	-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충청남도 시군	×	하
3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시군	×	어업
34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	-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의 객관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 절차 개선 -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기준에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방식 도입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청년 일자리 사업은 크게 취업 지원과 창업 지원, 농업 지원 내용으로 나뉘볼 수 있다. 취업 지원은 주로 지역 내 기업, 단체 등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과 일정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일 경험과 취창업을 연계하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공동체 등 종합적 정착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청년 개개인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을 기대하면서 지자체가 직접 청년 일자리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과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으로 진행된다. 그중 ‘지역정착지원형’은 청년들이 지역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중소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 법인 등 지역 기반 법인 및 단체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최대 2년, 추가 1년까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충남 15개 시군에서 6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지는 (2)번부터 (10)번까지 취업 지원 사업 대부분, 이 (1)‘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 어떤 재원과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촌 면 지역에는 고용 능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사업체가 적다.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농촌 지역 특성을 간과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면 지역에서는 일반 기업 취업 지원보다 (9)‘사회적 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10)‘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 과 같은 사회적 경제 분야나 (7) ‘청년공익활동가 육성’과 같은 지역 문제 해결 공익형 비영리 단체 활동가 지원 사업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청년 인력을 소모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4대보험 성립 고용직원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 지원된다.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최소한 관리 승인 아래 다양한 범주의 활동, 일거리 지원

으로 확장할 필요도 있다.

창업 지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청년창업가에게 직접 창업지원금이나 공간,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결합할 여지가 많지 않다. 다만 (29)‘지역마을 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처럼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공간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주변 주민, 지역 단체와의 합의, 협력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에는 폐창고 뿐 아니라 폐교, 권역센터, 빈집 등 유휴공간이 많다. 지역 주민과 함께 그 쓸모를 찾고 사업을 기획해서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기회가 더 많을수록 좋다.

청년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여럿이다. 하지만 농업 지원 역시 행정,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개인에게 직접 교육, 훈련, 시설,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18)‘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과 같이 지역사회 선배 농업인이나 농업 단체에서 현장에 밀착한 비형식적인 교육을 주도하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관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21)‘청년 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지원’처럼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지원도 농촌 지역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2) 주거 분야

[표Ⅲ-4]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목록 - 주거 분야 (충청남도, 2021 재정리)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운영기관	지역사회 주도·참여 가능 여부	면 지역 활용 가능성
35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저출산 극복 유도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입주 후 자녀출산에 따른 임대료 경감 - 첫째 출산 시 50% 감면, 둘째 이상 출산 시 100% 감면	충남개발공사 주거복지부	×	중
36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 - 서천군 관내 시설의 70% 수준 임대료 책정	서천군 도시건축과	×	상
37	충남 대전, 서울학사관 운영	- 충남·대전 및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정주 공간을 제공하여 학비경감 및 면학환경 조성 - 숙박 및 급식 제공, 동아리활동 지원, 취업교육 및 면학환경 제공 등	대전학사관 서울학사관	×	해당없음
38	지역사회 청년 세어하우스 운영	- 지역 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저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제공 - 방을 공유하는 형식의 주거로, 소규모 리모델링비(장판교체, 벽지도배 등)와 월세 일부보조 - 월별 1인 당 163천원 이내 지원 + 청년 자부담(50~100천원)	충청남도 시군	○	상
39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 - 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중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가장 큰 난제다. 도시 동·읍 지역에서는 비용이 들어도 전·월세 주거지를 찾을 수 있지만 면 단위 지역에서는 아예 관련 정보를 구하기조차 어렵다. 청년세대는 땅을 사거나 직접 집을 지을 자산도 부족하고, 이주 초기 농촌 생활에 적응하고 진로를 모색하기 전에 덜컥 큰 비용을 주거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다. 마을에서 신뢰를 얻어야 겨우 빈집을 구하더라도 워낙 노후화된 무허가 주택이거나 토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공적 자금으로 수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우선 지역 이주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진로를 모색하는 동안 1~2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38)‘지역사회 청년 세어하우스’ 사업과 같은 순환형 임시 주거지가 많이 필요하다. 주거 공간을 거점으로 여러 관계와 정보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나 연계 사업 진행, 지역 관리 운영 주체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촌 면 소재지에도 적정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도시 지역 중심 대단지로만 기획되었다. 하지만 농촌 면 지역에도 이주해오는 귀농·귀촌인이거나 귀향인, 노후된 농가 주택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고령자를 위한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역 안에서 마땅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 인근 신도시나 읍내에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는 귀농인, 귀향인이 많다. 또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노후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자식이 있는 도시나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35)‘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36)‘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 농촌 면 소재지에 지역 규모에 따라 약 10호부터 30~40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다. (36)‘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남 서천군을 비롯하여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경북 상주시 4개 지역을 선정한 이후 추가 공모,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35)‘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 역시 도시 중심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아닌 중소규모 농촌형 모델로 시도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중심으로 입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금 더 세대 포용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한편 농촌 지역에서 신규 주민, 이주 청년을 위한 주거지를 조성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이주 청년과 기존 지역 주민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다. 신규 주거지도 지역/마을의 일부이다. 또한 주거지 조성에는 관련 생활 SOC도 따라붙는다. 배후 마을과의 연계, 공동자원의 조성, 유지,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과 합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그를 조정하고 운영할 지역 주체 형성이 필요하다.

3) 교육 분야

[표Ⅲ-5]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목록 - 교육 분야 (충청남도, 2021 재정리)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운영기관	지역사회 주도·참여 가능 여부	면 지역 활용 가능성
40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지원	- 장학사업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차세대 지역인재육성 - 서류, 면접 등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충남 인재육성재단	×	하
41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지원	- 지역청년 취업역량강화 및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청년층의 공공교육기관 부재로 인한 교육기회 제공 - 신용회복지원사업,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온라인 교육지원	충남 인재육성재단	×	하
42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조성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융복합 교육 실시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SW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	하
43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 친환경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부 대상 교육,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 - 교육훈련비, 각종 회의 및 워크숍, 선진지 견학, 생산유통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모바일앱(쇼핑몰) 개발 및 유지관리 등 지원	충청남도 시군	○	농업
44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 사업	-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농업전문교육, 생활실용 기술교육 등으로 청년 전문 경영인 양성 - 창업을 위한 기본역량 배양 교육	시군농업기술 센터	×	농업
45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형식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청년학교(참여위주의 학습 프로그램), 청년 커뮤니티(청년학교와 연계하여 소규모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충청남도 시군	○	상
46	청년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 도내 계약학과 지원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 계약학과(공동훈련센터) 운영경비, 등록금,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비 등 지원	공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계약학과	×	해당없음

교육 분야 지원 정책은 장학금 지원, 취업역량 강화, IT 기술, 친환경농업 및 농업기술교육, 계약학 등 전문적인 기술 교육 등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과 집합식 형식적 교육이 주를 이룬다. 다루고 있는 범위나 내용도 한정적이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거나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정책자원을 연계하는 형식적인 교육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청년세대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두루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청년세대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 자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스스로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 (43)‘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은 ‘충남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사업’ 수혜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기획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청년 당사자(기수별 대표와 간사)에게는 일정 정도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교육이 더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광역 지자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중간지원조직,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귀농·귀촌 안내 과정이나 관련 기술 교육 기회는 매우 많다. 박람회, 1박 2일 캠프부터 한 달 살아보기, 온라인 교육, 수개월 전문가 과정까지 그 형태와 방식도 다양하다.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갖고 이주를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실제 경험 부족과 지역사회 정보, 관계 부족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 [그림Ⅱ-15, 17] 그 어려움은 결국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 [그림Ⅱ-16] 그렇다면 농촌이주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은 농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농촌이주청년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웃의 경조사나 마을 울력에 참여하거나 지역에서 열리는 동아리나 모임, 지역 단체 행사에 참여해 청년을 선보이는 일,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일상을 지원하는 일이 어쩌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땅에 묶이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에서는 장소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에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교육이나 지원은 정책 사업이나 행정에서는 접근하기 어렵다. 교육 주체로서 ‘농촌 지역사회’에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다.

4) 복지·문화 분야

[표Ⅲ-6]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목록 - 복지·문화 분야 (충청남도, 2021 재정리)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운영기관	지역사회 주도·참여 가능 여부	면 지역 활용 가능성
47	청년희망계좌(가칭) 통합 및 운영 개선	- 저소득 가구 및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	충청남도 시군	×	상
48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청년사회서비스단)	- 경제적 여건과 정신·신체 건강이 취약한 청년층에게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건강문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	상
49	충남청년의 날	-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행사 개최 -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날 행사 운영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해당없음
5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감 완화 및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시군	×	해당없음
51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 농촌인구 도시 유출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어업인에게 교육·문화·레저활동 지원 목적의 바우처 지원 - 교육·문화·레저시설 이용 바우처 20만원 지원	충청남도 시군	×	농업

52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 청년 문화예술인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기획·실무 교육 제공 -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교육 지원	충남문화재단	△	중
53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의 실무경험 및 기획능력을 배양하고 문화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도내 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및 운영비 지원	충남문화재단	×	하
54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홍보 활성화	- 충남 대표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홍보 활성화 -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과과정 제공,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무상제공 등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중
55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 청년예술가 진입장벽 해소 및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충남문화예술생태계 구축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 경력단절별 맞춤형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 공유 영상 제작 등	충남문화재단	△	상
56	충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운영	- 지역의 중추적인 콘텐츠기업 육성시설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 공공 엑셀러레이팅 플랫폼 운영, 입주기업 스케일업, 실감콘텐츠 XR 인력 양성교육 등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하
57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청년 창의인재 육성,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 청년 창의인력 양성, 문화 융복합 콘텐츠 발굴,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 등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하
58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	- 지역의 청년 음악창작을 활성화하고, 음악 창의 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의 꿈과 가치 실현 - 인프라(공연장 등) 지원, 청년예술가 음악창작·제작 지원프로그램 운영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하

복지 분야 청년정책이 매우 적다. 물론 청년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은 구축하고 있지만,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이나 다양한 욕구와 그를 풀어낼 기회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복지·문화 분야 정책 역시 모두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다. 운영 주체 및 공공 문화시설 및 조직 외 지역사회 차원에서 참여하기는 어렵다. 지역 면 단위에 문화 시설 및 조직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52)‘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54)‘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 홍보 활성화’, (55)‘청년문화예술가 육성’과 같은 사업이 진행될 때 교육 과정 중이나 이후 활동 무대를 농촌 면 단위 지역사회와 결합한 프로젝트 진행으로 유도하거나 안내할 수는 있다.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및 자원이 취약한 농촌 지역과 청년 문화기획자, 예술가의 만남은 새로운 시선으로 농촌의 자원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되살릴 수 있는 기회이자 청년에게는 색다른 도전이 된다. 또한 각종 장비나 공간 등을 빌리거나 공유할 수 있는 팹랩(FAB LAB)이나 열린 스튜디오 등은 농촌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유경제 실험 및 청년 예술가/문화기획자 양성의 일환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5) 참여·권리 분야

[표Ⅲ-7]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목록 - 참여·권리 분야 (충청남도, 2021 재정리)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운영기관	지역사회 주도·참여 가능 여부	면 지역 활용 가능성
59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청년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해당없음
60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	- 청년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0% 이상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추진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해당없음
61	충남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 청년 중심 거버넌스 구축으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청년 간 소통망 조성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 지원 - 발대식, 역량강화, 및 교류회 등 운영, 분과위별 정책 연구 지원 등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해당없음
62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 청년과의 소통·공감 채널 다양화, 현장감 있는 의견 수렴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방안 모색 - 분야별·직능별 청년과의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해당없음
63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비전 및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되, 청년 지역 유입·정착,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둔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해당없음
64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청년 친화형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 유도 - 우수 1개 시군 인증 및 포상금 20백만원 지급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해당없음
65	청년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 다양한 충남의 청년지원정책을 청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 정보 제공으로 정책 인지도 제고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해당없음
66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	- 도내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및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 소통 공간 마련 - 건물(공간) 신축 또는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공동 공간 조성(회의실, 동아리방, 창업공간, 휴식공간, 등)	충청남도 시군	○	상
67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지역에 활동할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비 1천만원 지원, 멘토 및 자문단 운영,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상
68	지역청년멘토사업 육성지원사업	- 청년멘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역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 - 멘토-멘티가 함께 청년문제 해결 및 안정적 지역살이를 위해 필요한 자율기획사업 지원 - 한달 살아보기, 청년공간 마련, 일자리 창출, 청년공동체 육성 등	충청남도 시군	○	상
69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살기학교)	- 서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자신만의 삶 기술로 삶을 살고 싶은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 지역살이 및 리모트워크 중개 서비스 조성 - 청년 활력 및 자립 사업 지원, 청년 활동 공간 지원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	상

70	청년 자원봉사 콘텐츠 기획단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전 실시, 해외 봉사여행 실시(코로나19 확산세 경감 시)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	해당없음
71	청년 금융경제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경제 지식과 투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현명한 경제생활 마인드 형성 지원 - 경제교육이 필요한 실직,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제공 	충남연구원 충남경제 교육센터	×	해당없음
72	노동권익보호관을 통한 노동권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권익보호관 등 전문가를 통한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제공 - 기초노동법 및 주요 노동시책 등 사례 중심 노동교육 제공 	경제실 일자리노동 정책과	×	해당없음
73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취약노동자(여성, 노인, 청소년, 비정규직 등)의 노동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 도내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및 노동정책 발굴 실태조사와 연구활동 	충청남도노동 권익센터	×	해당없음
74	충남형 청년 캠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 중인 도시 청년에게 직접 살아보는 프로그램 제공 - 2~4주간 주거·생활 공간과 지역교류 활동, 일자리 체험 등 제공 	충청남도 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	상

정책과정 전반에 청년 당사자가 참여해서 다양한 청년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더 나은 지역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경험, 그 경험의 축적과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청년문제를 넘어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무언가를 실천해 나가는 힘이 생긴다. 청년 주도의 기획, 참여 사업이야말로 지역사회와 가장 유연하게 만나고 스스로의 문제를 서로 도와 해결해나갈 기회다. 농촌이주청년의 이주와 정착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촌이주청년의 느슨한 커뮤니티와 공간만으로도 많은 정보와 자원이 흐를 수 있다. (66)‘청년활력공간 LAB 조성’이나 (67)‘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서로 돕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과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다만 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민간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원 확보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대상 선정 기준을 단순히 지리적 접근성이나 참여 청년 숫자 같은 정량적인 지표 외에도 지역 내 균형이나 지역사회의 의지, 농촌 지역의 특수한 필요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다시 청년당사자나 지역사회의 정책과정 참여가 중요하다.

(69)와 같이 먼 단위 농촌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이주청년들의 지역 탐색과 모색을 돕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여러 실험과 모델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69)‘삶기술학교’는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사업 종료 후, 성과를 긍정적으로 판단, 충남과 서천군 지역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분야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주청년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주체가 중요하다. (68)‘지역청년멘토사업 육성지원사업’의 멘토, (70)‘청년 자원봉사 콘

텐츠 기획단 육성'의 지역 단체, (74)'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호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 주민, 또는 선배 청년의 존재와 역할이 결정적이다.

3. 소결

1) 청년정책의 진일보와 개별 정책 추진의 한계

최근 4~5년 사이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각 광역 및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전의 청년 지원이 일자리 제공 중심의 고용정책 또는 출산을 제고를 목표로 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 이제는 청년정책 자체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 목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 청년의 일, 삶, 주거, 문화, 교육,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두루 살피는 종합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처럼 청년정책이 많고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청년정책의 투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체감이 낮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정책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청년이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존재한다. 문제는, 지역 단위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더라도 실제 정책사업은 부서별로 쪼개져서 각각 추진된다는 점이다. 또한 한 지역 안에서도 기관별·부처별로 중첩된 내용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성과를 위해 수혜자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위별 영역별 정책 사업은 다시 파편화되어서 청년 개인에게 전달되고, 청년은 계속해서 단계별 통합적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농촌 지역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무엇'을 더 할까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부분 정책사업은 행정에서 청년 개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 실제로 살아갈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없다. 정책 지원 때문에 오히려 지원 이후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나 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청년 개인'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지역사회 전반의 상황과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청년을 지원하는 일이 곧,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지역사회를 발전 강화하는 일이 된다. 그 역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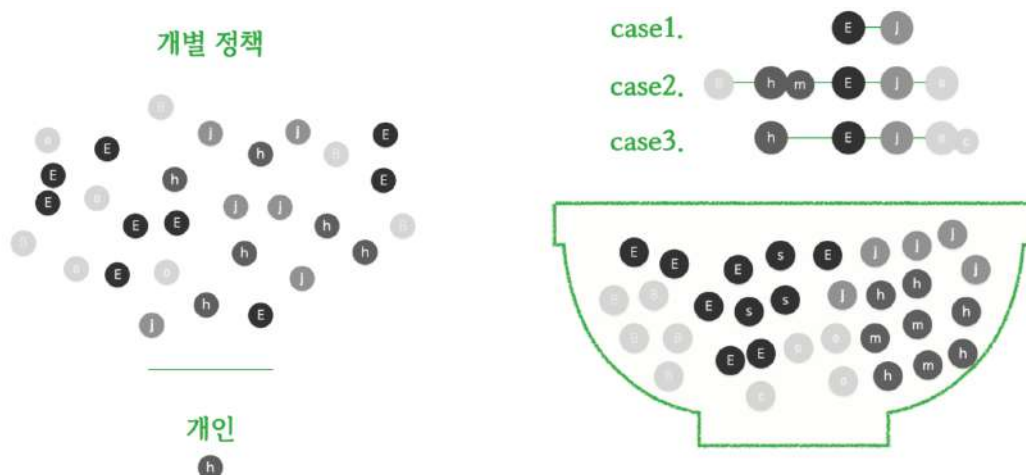
2) 농촌 지역사회 주체의 통합적·포괄적 지원 필요

각 중앙부처별, 지자체별로 농촌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이미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일자리/교육/문화복지/참여 등), 대상별(귀농/귀촌/학생)로 그를 지원하는

지원조직과 교육과정, 정책사업도 있다. 다만 각 단위 사업이 영역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경로를 찾기 어렵다. 또한 지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거나 단편적, 단발적인 지원으로 실제 농촌이주청년의 탐색과 모색, 정착 과정에서 적시적소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개별 부서의 기획, 정책 사업으로는 농촌이주청년 정착의 전 과정과 다양한 상황, 욕구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편적·단기적으로 산재해 있는 정보와 자원, 정책사업, 교육훈련 지원 등을 모아 지역 현실과 수요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기획하고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 지원주체는 행정과 민간 사이, 지역 단체와 단체 사이, 지역 사회와 청년 사이를 연결하고 중재하려면 지역 자원과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역할을 함께 할 더 많은 주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림Ⅲ-1] 지역사회 주체의 통합적 정책 지원



Ⅳ. 국내외 농촌이주청년 지원 사례

이 장에서는 농촌이주청년을 돕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다. 국외 사례로는 농촌 지역 문제 해결과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진로 탐색 지원이 만날 수 있는 정책과 지역 경험을 찾았다. 고령화 및 과소화로 활력이 떨어진 농촌 지역 재생 과제와 청년 활동 지원과의 결합은 일찍이 유럽과 일본 등 공통의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서 고민하고 실천해왔던 문제다. 그 가운데 국가 단위로 각각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그를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풀어내는 민간주체의 지역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 사례로는 농촌 면 단위 지역에서 농촌이주청년을 돕는 2개 지역 경험을 조사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과 경북 의성군 안계면은 최근 3년 사이 정책 사업을 활용해 청년의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 대표 사례이다. 두 지역의 지원 추진 주체와 방식, 활용 정책이 다르다. 각 주체는 어떻게 조직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정책사업은 어떤 도움과 한계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 국외 사례

1) 유럽: EU 농촌개발프로그램과 청년¹⁰⁾

EU의 농촌개발 전략 가이드라인은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축은 농림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제2축은 농촌 자연자원,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과 토지관리, 제3축은 경제적 다양성 및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축은 LEADER¹¹⁾ 프로그램이다. 1991년부터 추진된 LEADER 프로그램은 특정 농촌 지역에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를 고려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품목 산업 중심의 농업 개발을 넘어 지역 중심의 통합적 농촌개발, 주민참여, 자율성, 유연성,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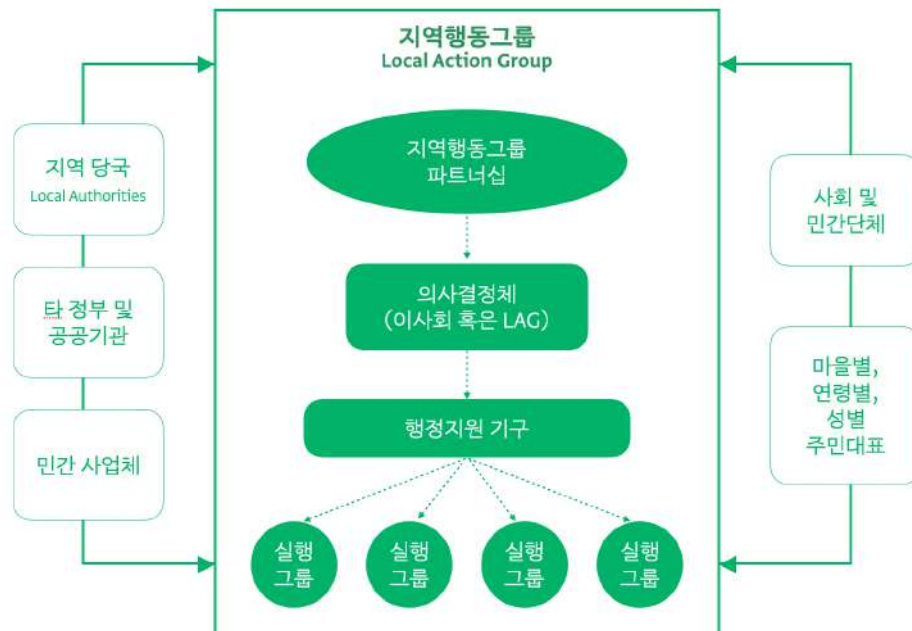
특히 2000~2006년에 추진된 LEADER+는 지역행동그룹(Local Action Group, 이하 ‘LAG’)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통합적인 농촌지역개발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LAG는 연구단체, 문화 지역공동체 서비스 공급자, 지역기관 및 행정, 전문단체(농민, 비농민, 전문가, 소기업 대표), 시민·주민·지역단체, 환경단체 등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10) 이 내용은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과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세대 농산어촌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방안』 보고서 내용 중 해외 사례 소개 부분을 정리·요약했다.

11) LEADER는 프랑스어 “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Rurale”의 약자로 ‘농촌 경제와 개발 활동 사이의 연결’을 의미한다. (EU 지역개발네트워크 홈페이지 enrd.ec.europa.eu)

지역사회 문제를 집합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원이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면서 혁신적인 해법을 이끌어낸다. 각 지역행동그룹은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개발프로젝트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그림Ⅳ-1] LEADER 지역활동그룹의 구조와 파트너십



LAG들은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농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 노하우 활용 및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활동 등 특정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사회적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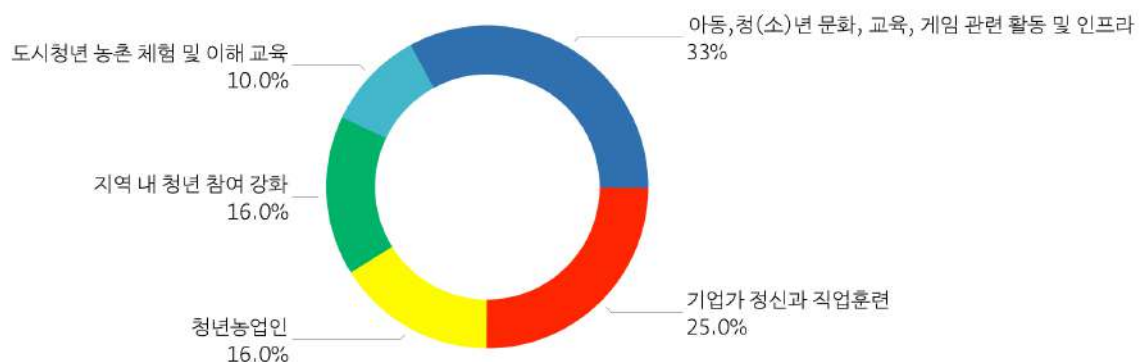
LEADER 프로그램에 투자된 예산은 다른 농촌개발정책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농촌지역정책의 유럽적 모델이라 불릴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2007~2013년 시기에는 별도 프로젝트가 아닌 전체 농촌지역개발정책 방법론으로서 채택되었다. 이들 LAG와 국가별 네트워크는 LEADER+가 종료된 이후에도 ELARD(European Leader Association for Rural Development)라는 유럽 수준의 지역개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설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다수 EU 회원국들은 농촌개발 전략 가이드라인 제3축과 LEADER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농촌개발프로그램 중 청년 관련 프로젝트는 83개인데 그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각종 문화, 교육, 게임 등 활동(31%)이거나 그와 관련된 인프라에 관한 것(2%)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유럽농촌개발기금,

청년활동그룹, 민간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LAG가 가장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한다. 다른 참여 주체는 주로 시민협회, 중앙 및 지방정부, 청년농업인협회, 민간기업 등이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기업가 정신과 직업훈련(25%) 또는 청년농업인(16%)에 관한 것이다. 이들 프로젝트 대부분은 유럽농촌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지역 의사결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강화하는 프로젝트(16%)가 그다음으로 많다. 농촌 발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흥미로운 점은 LAG가 농촌발전에서 청년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모든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라는 점이다. 보조금 규모가 작은 대신 행정의 관여 역시 적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소규모 농촌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농촌의 삶, 농촌 지역을 널리 알리는 프로젝트 유형이 약 10%를 차지한다. 이들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는 대부분 청년농업인협회, LAG, 지역네트워크, 대학 등이다.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의 삶에서 오는 기회와 혜택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농촌의 다양한 면을 청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림Ⅳ-2] 청년 관련 농촌개발프로젝트 주제



2)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는 2009년 일본 총무성에서 과소지역 대책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도시 지역으로부터 활력이 떨어지는 지방 과소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유입인력이 지역의 새로운 생활주역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2014년 일본창성회의에서 ‘소멸 자치체 리스트’ 및 ‘스톱 소자녀화·지방활력 전략 보고서’(통칭 ‘마스다 보고서’)가 공표된 이후 일본 전역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됨에 따라 아베 내각은 2015년부터 인구감소 억제와 지방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람·일 창생 비전’과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이 ‘지방창생 전략’의 주요 프로젝트로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확대 실시하게 된다. (대통령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2009년 당시 31개 지역 89명으로 시작해서 해마다 참여 지역과 인원이 급격히 늘었다. 2020년 기준 1,065개 지역 5,556명이 참여했다.(일본 총무성,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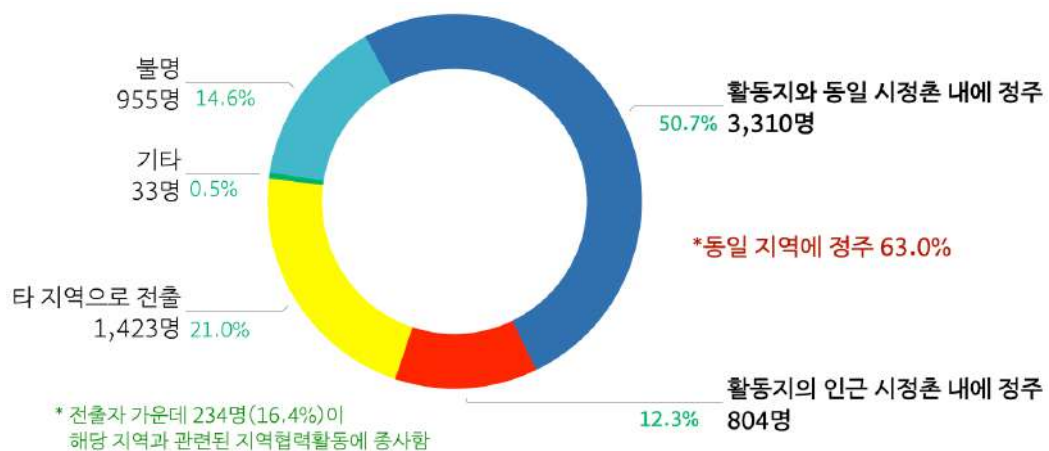
[표Ⅳ-1]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실시 현황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2021)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참여인원	89	257	413	617	978	1,629	2,799	4,090	4,976	5,530	5,503	5,556
지자체	31	90	147	207	318	444	673	886	997	1,061	1,071	1,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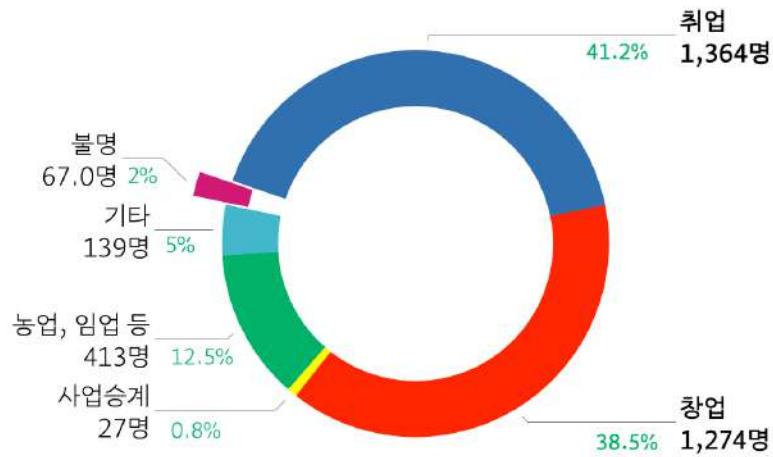
‘지역부흥협력대’는 각 지자체가 직접 모집 선발 진행을 추진한다. 일본 대도시권에서 도시 주민을 선발, ‘지역부흥협력대’로 위촉하고, 위촉 대원은 1~3년 정도 해당 지역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한다. 특별교부세로 대원 1인당 400만엔을 지원한다. 일종의 급료인 보상비 약 200~250만 엔과 활동을 위한 기타경비 200만 엔으로 쓸 수 있다. 임기 종료 이후 창업 경비로 1인당 100만 엔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브랜드화나 지역 상품의 개발·판매·프로모션, 도시 주민의 이주·교류 지원, 농림수산업 종사, 수원지나 삼림 등 환경보전 활동,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고령인 이동 지원, 지역 관광, 지역 학교 행사 지원, 교육활동, 마을 만들기 및 주민생활의 유지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부흥협력대원이 해당 지역에 아주 정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매년 운영 성과를 공표한다. 2019년 3월 31일까지 임기가 종료된 지역부흥협력대원은 총 6,525명이다. 이중 여성이 2,449명으로 37.5%, 남성이 4,076명으로 62.5%이다. 20대가 2,001명으로 30.7%, 30대가 2,598명으로 39.8%로 전체의 약 70%가 20~30대 청년층이다. 40대가 20.9%, 50대가 6.6%를 뒤를 잇는다. 지역부흥협력대 임기 종료 후 약 60%의 대원이 해당 지역에 정착했다. 동일 지역 시정촌에서 50.7%, 인근 시정촌에서 12.3%가 남아 살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21.8% 중에서도 일부는 지역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정주한 3,310명 중에 41.2%는 취업, 38.5%는 창업을 했다. 12.5%는 농림업에 종사한다.

[그림Ⅳ-3]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임기 종료 후 동향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2021)



[그림Ⅳ-4]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동일 지역 정착자 동향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2021)



[표Ⅳ-2]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지역 정착 실태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2021)

	내용	인원
취업 1,364명	행정관계 (지자체 직원, 의원, 집락지원인 등)	349
	관광업 (여행사, 숙박업 등)	158
	농림어업 (농업법인, 산림조합 등)	117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 지원 관계	102
	의료, 복지업	76
	소매업	66
	제조업	61
	음식업	51
	교육업	39
	그 외	345
농림어업 413명	농업	341
	임업	45
	출산업	18
	어업 수산업	6
	그 외	3
창업 1,274명	음식서비스업 (옛날 집 카페, 농가 레스토랑 등)	207
	숙박업 (게스트하우스, 농가민박 등)	143
	미술 (공예 포함), 디자이너, 사진가, 영상촬영 등	137
	6차산업 (돼지나 사슴 등 식육가공, 판매 등)	94
	소매업 (빵집, 피자 등 이동판매, 농산물 통신판매 등)	91
	관광업 (투어 안내, 일본 문화 체험 등)	74
	마을만들기 지원 (취락지원, 지역브랜드 만들기 등 지원)	58
	그 외	470
사업승계	주조 승계, 민박 승계 등	27

3) 일본: 노토유학 12)

노토유학(能登留学)은 일본 혼슈(本州) 섬의 중부, 이시카와현(石川県)에 위치한 노토 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년 대상 커리어 디자인 프로그램이다. 노토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커리어디자인이란 자신다움, 삶의 방식을 그리는 것으로 ‘정답이 없는 질문에 가설을 세우고 나름의 해답을 찾기 위한’ 활동이다. 일본에서도 특히 과소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토 지역에서, 청년을 인턴생으로 매칭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더불어 청년의 성장을 연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상공회의소, 공영신용금고, 지자체, 민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중소기업 등이 ‘나나오유학추진협의회’(七尾留学推進協議会)를 결성하였다.

노토유학의 추진 주체는 ‘주식회사 미소기가와’(御祓川)이다. 지역 자원을 연결해서 청년 인턴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들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 단체, 기업, 마을에 힘을 보탬 수 있으며, 청년들은 지역 현장에서 도전하고 활동하는 이들로 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지역과 전혀 연결점이 없던 청년들이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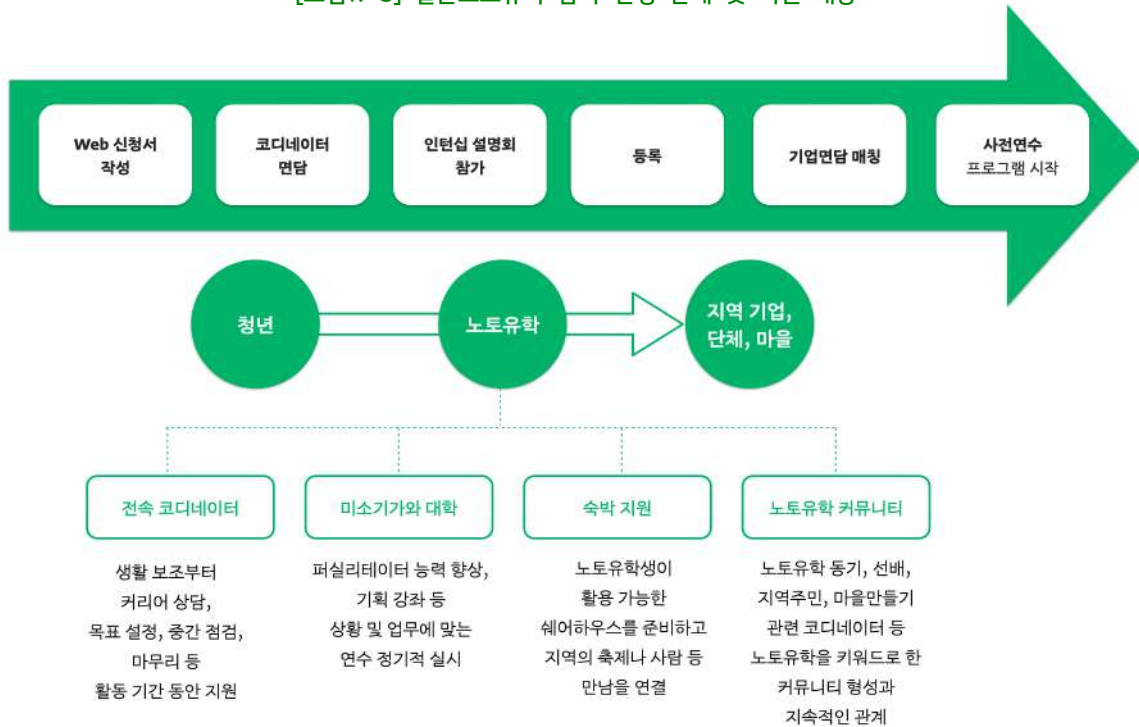
주식회사 미소기가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각각 커리큘럼화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지역 현장에서 배우려는 청년들에게 체험프로그램과 강좌를 진행하는 미소기가와 대학(마을만들기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대학생과 사회인으로 2010년부터 시작한 노토유학은 대학생만 2018년 기준 1~2개월 90명, 3개월 83명, 총 173명이 참가했으며 75% 이상이 이시카와현 출신이 아닌 청년들이었다.

노토유학은 참가자 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지역 탐색과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목 선정과 현장감을 전하는 사진 선정에 신경을 쓴다. 면담 과정에서는 청년의 성장보다 프로젝트에 대한 공헌 의욕을 주목한다. 그 전에 경험이 없더라도 자신이 프로젝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참가 청년을 선발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청년이 지역을 빠르게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밀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학습과 만남, 자원조사 등을 지원한다. 청년이 중간에 의욕을 잃거나 벽에 부딪혀서 힘을 잃지 않도록 사업 일정에 킥오프, 중간 점검, 결과 보고를 배치한다.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져서 프로젝트 진척 확인 및 방향 전환을 조언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참가자는 일지를 기록하여 제출하는데, 제출이 밀릴 경우 곧바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또한 합동 멘토링을 통해 다른 참여 청년이나 지역 활동 보고를 공유하면서 교류를 통해 동기를 북돋는다. 참가자가 접수 담당자나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역의 다른 어른에게 상담할 수 있는 관계를 연결해서 지역 전체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12) 이 내용은 본 연구진이 작성한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2019,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확대 및 발전방안』 보고서 내용 중 해외 사례 소개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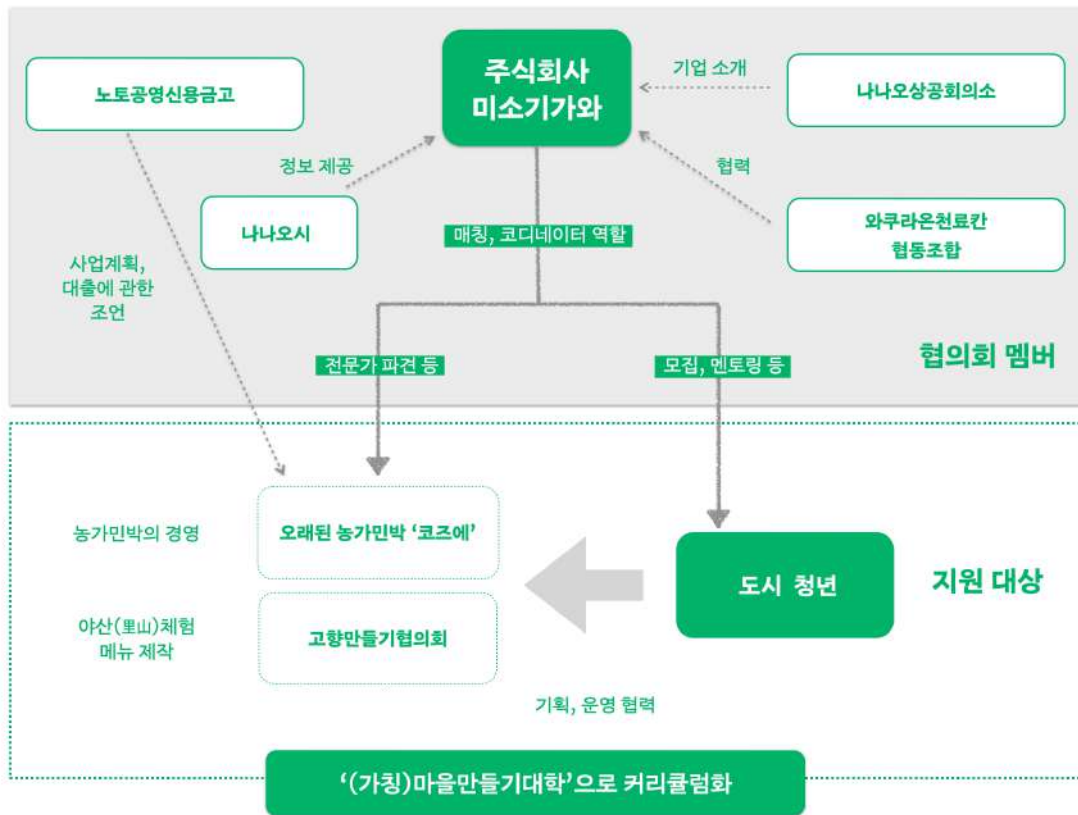
[그림 IV-5] 일본노토유학 참가 신청 단계 및 지원 내용



노토 지역 문제 해결과 청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활동의 추진체계를 개별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노토 지역 야산(里山)의 오래된 농가 민가 ‘코즈에’와 나타우치 지구 지역활성화 활동을 펼치는 주민 조직 ‘고향만들기협의회’가 지역 특성을 살린 숙박 및 체험 메뉴를 기획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도시 청년이 노토유학 인턴으로 참여했다. 청년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활성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노토유학’의 구조를 커리큘럼화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노토유학을 운영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대학 운영을 목표로 했다. 마을만들기를 실천적으로 배우려는 청년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동시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기업, 단체, 마을 주민도 수강생으로 참여하면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수행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주식회사 미야기가와는 전체 사업의 기획·운영을 담당한다. 참가 청년과 지역을 매칭하고 전체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또한 참가 청년의 동기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협의회 각 구성원도 프로젝트를 위한 역할을 한다. 노토공영신용금고는 지역 활동에 대한 대출과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나나오상공회의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생각하는 기업이나 인턴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 단체를 주식회사 미야기가와에 소개한다. 나나오시는 관련 정책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와쿠라온천료칸협동조합은 인턴 훈련 및 교육을 지원한다.

[그림Ⅳ-6] 일본 노토유학 추진체계 예시



[표Ⅳ-3] 노토유학 프로그램 사례 ①

울무의 6차산업화 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을 up시켜라! 일본의 농업을 바꾸는 인턴	
미션	울무와 자연재배 쌀 상품의 판매 리뉴얼 제품 기획과 마케팅 조사 지역 농가 일손 돕기
대상	대학생, 사회인
유형	장기인턴십
일의 내용	[1단계] 지역에 말뚝박기: 지역 개요, 일상의 흐름 알기, 주민과 관계 만들기 [2단계] 마케팅 조사: 울무, 쌀 상품 리뉴얼 위한 마케팅 조사, 직판소 고객 설문, 조합원 공청회, 직원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3단계] 리뉴얼 제품 계획: 마케팅 조사 결과 토대로 리뉴얼 상품 기획, 타겟팅, 컨셉, 원가계산 감안한 가격 설정, 상품 전시 방법 등 [4단계] 성과 발표: 리뉴얼 계획, 로컬비즈니스 과제, 성과와 배움 발표하기
희망하는 사람	장래에 지역에서 살거나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연령을 불문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즐겁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시골 생활을 경험하면서 일과 삶 측면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은 사람
얻을 수 있는 경험	노토지역의 시골생활체험 여름 버전! 지역의 어른들과 세계의 식문화를 바꾸는 진심어린 도전 마을에 살면서 주민들과 관계 맺고 스며드는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형태로 만들어가는 경험 시골의 일, 생활, 만남을 통해 자신다운 커리어를 디자인하는 경험

주관단체	하쿠이농업공동조합
사전과제	별도 안내
기간	2019년 중 4개월 이상
활동 조건	주 5일 정도
숙소	시내 이주체험 주택 (집세 무료)
활동장소	JA하쿠이지역 내
활동지원금	있음

[표Ⅳ-4] 노토유학 프로그램 사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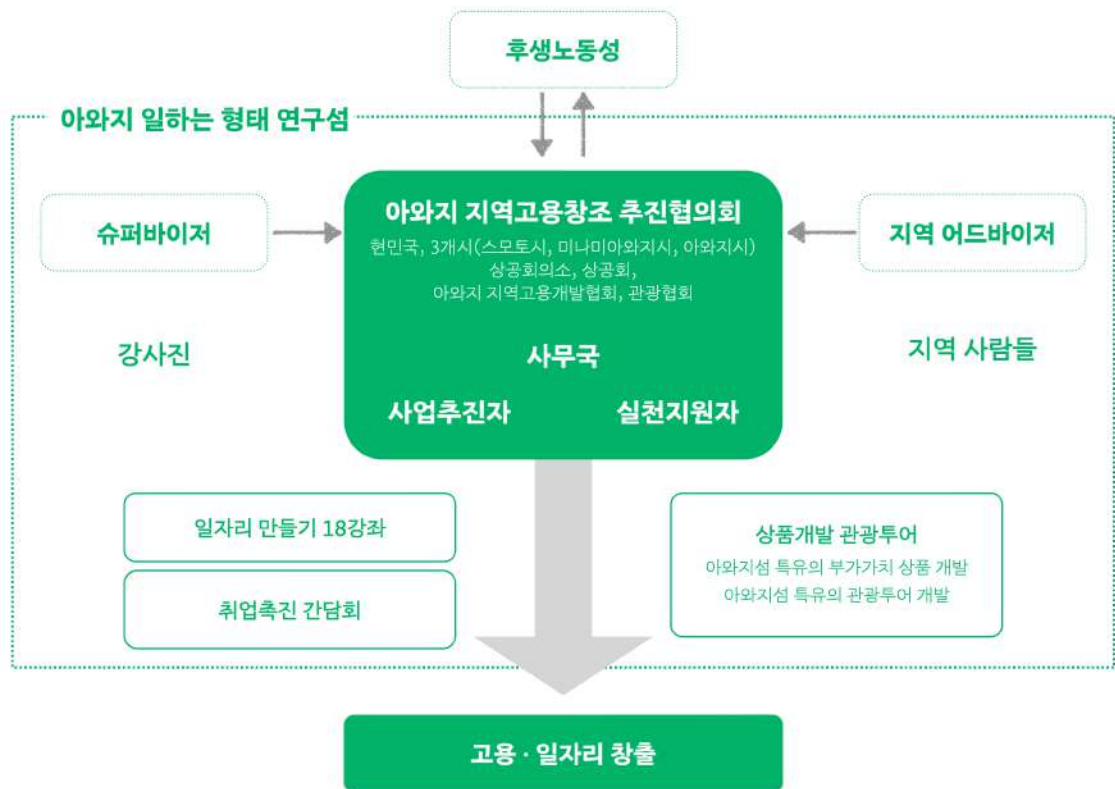
마을만들기 회사의 '인맥'을 가시화하는 시민대학의 커뮤니티 매니저 모집	
미션	미야기가와 대학 메인콘텐츠 구축: 미야기가와대학 사람들 인터뷰 콘텐츠 작성, 20*4주년 기념행사 기획, 봄학기 강좌 기획 및 운영, 코워킹스페이스 관리, SNS 홍보 및 대학통신 발간
대상	대학생, 사회인
유형	장기인턴십
일의 내용	[1단계] 장소-거리 알기: 미야기가와 대학이 위치한 나나오시 잇폰스기도리 상가 거리, 관계, 장소 알기 [2단계] 시민대학 운영: 시민대학 운영 관리, 대학통신 발간, 다음 학기 강좌 기획 및 교육 [3단계] 미야기가와대학 관계자 인터뷰 취재 및 기사 작성 [4단계] 회사 20주년, 대학 4주년 축하행사 기획 [5단계] 전회기 인턴생 진행 프로젝트 인수인계, 웨어오피스 구조 운영 [6단계] 성과보고회 인수
희망하는 사람	장애에 지역이나 고양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시민대학, 평생교육의 구조와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사람 커뮤니티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 자신의 장점이나 특기를 발견하고 키우고 싶은 사람 팀으로 일을 추진해나가는 협업 능력을 익히고 싶은 사람 공무원과 민간기업 취직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얻을 수 있는 경험	지역기반 커뮤니티 육성 마을만들기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 장소 운영, 관리 기술과 노하우 지역 자원과 사람들의 마음을 매개로 하는 경험 사회인 수준의 성과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일하는 방식, 전문 분야의 차이를 경험
주관단체	미야기가와대학 프로젝트 '마을만들기'
기간	2019년 4월 ~ 9월까지 4, 6개월 (단기는 상담)
활동 조건	주 3~5일 정도
숙소	인턴하우스 15,000엔/월 (공동식비, 생활비, 공과금 포함)
활동장소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내
활동지원금	있음

3) 일본: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¹³⁾

아와지섬은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섬이다. 인구는 약 13만 명, 면적 595km²으로 풍부한 자연과 온난한 기후로 신선한 농작물과 해산물이 풍부하다. 1차 산업 비중이 18.8%로 전국평균보다 높고, 2차 산업이 23.2%로 낮은 편이다.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일본 후생노동성 위탁사업으로 지역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이주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교육 및 활동 조직을 통해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내용은 농촌이주청년 지원체계 구축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은 취업을 위한 기술향상 지원이나 신상품 개발 같은 종래의 고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섬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업 수준의 창업과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각각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지역 커뮤니티(마을, 단체, 조합, 기업 등)를 연계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건축가, 디자이너, 창업전문가, 채용인사전문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림Ⅳ-7] 일본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추진체계



13) 이 내용은 신소희·천진아, 2020, 『전남 농수산분야 고부가가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 내용 중 해외 사례 소개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역고용창조 추진사업, 2013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는 실천형 지역고용창조사업,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했다. 1단계 지역고용창조 추진사업으로는 ‘인재육성연구회’, ‘고용확대연구회’, ‘취업촉진간담회’를 진행했다. 2단계 실천형 지역고용 창조사업은 ‘인재육성연수’, ‘고용확대세미나’, ‘취업촉진간담회’, ‘아와지 특유의 부가가치 상품 개발’, ‘아와지 특유의 관광투어 개발’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지역 협의회와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 슈퍼바이저의 소개로 섭외한 지역 밖 전문가와 지역 어드바이저가 협업했다. 일자리 만들기 강좌, 취업촉진 간담회, 관광투어 상품 개발 같은 다양한 강좌를 개최했다. 주민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신상품 개발이나 일의 확대, 창업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표Ⅳ-5] 일본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에서 진행한 연구회, 연수, 세미나

	2012	2013	2014	2015
인재육성	[이노베이션 연수]		[비즈니스 기술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쓸모있는 디자인 연구회 - 일하는 방법 연구회 - 선인에게 배우는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부터 생각하는 디자인 연구회 - 일을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 일하는 방법 연구회 - 선인에게 배우는 연구회 - 아이들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다운 회사 만들기 연수 - 오래 팔리는 사업과 상품 만들기 연수 - SNS를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수 - 알면 득이 되는 창업방법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연수 - 선택받도록 전하는 연수 - 효과적인 디자인 사용법 연수 - 가고 싶어지는 가게 만들기 연수 - 알면 득이 되는 창업방법 연수
	[관광 투어리즘 개발]		[새로운 관광개발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접 잘하기 위한 연구회 - 투어 크리에이터가 되는 연구회 - 푸드크리에이터가 되는 연구회 - 투어 판매 스태프가 되는 연구회 - 공간 크리에이터가 되는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접을 형태로 만드는 연구회 - 아와지 섬의 매력을 알리는 에디터 연구회 - 아와지 섬의 지비에(먹거리)를 생각하는 연구회 - 투어를 판매하는 연구회 - 대접하는 공간을 만드는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의 매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연수 - 섬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벤트 연수 - 관계를 육성하는 장 만들기 연수 - 섬체험 투어리즘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의 매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연수 - 이벤트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연수 - 만남을 형태로 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수 - 제안하는 힘을 배우는 연수
	[농축수산물 음식업 비즈니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일을 생각하는 연구회 - 발상을 생각하는 연구회 - 목장일을 생각하는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상품을 개발하는 연구회 - 발상품을 개발하는 연구회 - 목장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의 혜택을 상품화하는 연수 - 발의 혜택을 상품화하는 연수 - 꽃과 과일을 상품화하는 연수 - 연결고리를 활용한 상품 개발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에서 시작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수 - 발을 알고 섬에서 일하는 연수 - 꽃, 허브, 과일로 일을 시작하는 연수 - 연결고리를 활용한 상품개발 연수
고용확대	[관광 투어리즘 개발]		[새로운 관광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할 지역 관광연구회 - 머물고 싶은 숙소 연구회 - 풍부한 식당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관광을 생각하는 연구회 - 머물고 싶은 숙소 연구회 - 풍부한 식당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매력을 형태로 하는 세미나 - 생산과 연결되는 숙소 만들기 세미나 - 착지형 관광투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매력을 형태로 하는 세미나 - 머물고 싶은 숙소 개발 세미나 - 연결고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세미나
	[농축수산물 음식업 비즈니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와지 섬의 바다를 보물로 바꾸는 연구회 - 아와지 섬의 식재료로 상품을 만드는 연구회 - 아와지 섬의 작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와지 섬의 바다를 보물로 바꾸는 연구회 - 아와지 섬의 식재료로 상품을 만드는 연구회 - 아와지 섬의 작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의 혜택을 보물로 바꾸는 세미나 - 바다의 혜택을 보물로 바꾸는 세미나 - 섬의 혜택을 보물로 바꾸는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의 혜택을 보물로 바꾸는 세미나 - 바다의 혜택을 보물로 바꾸는 세미나 - 섬의 혜택을 보물로 바꾸는 세미나
취업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프리젠테이션과 교류회 - 고향과 JOB페어 in 아와지섬(취업이 도움이 되는 자기 PR 향상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과 JOB페어 in 아와지섬 - 기업설명회 물건과 만나다, 사람과 만나다, 일과 만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기업 설명회 - 고향과 JOB페어 in 아와지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기업 설명회 - 고향과 JOB페어 in 아와지섬

[표Ⅳ-6]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프로젝트 예시

프로젝트 명	내용
스쿠라보(일구는 랩)	양계농가와 오일제조자, 농가, 디자이너, 비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흙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룹
황금섬 프로젝트	옛날 아와지 섬의 비옥한 밀밭을 되돌리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 농가, 제면회사, 음식점 등 제조사와 소비자가 함께 밀을 재배
전통채소 프로젝트	아와지 섬의 전통채소를 발굴하고 보존에서 판매까지의 구조를 생각하는 프로젝트 연구기간 중 발견한 몇 개의 전통채소로 진행
섬의 아침밥	‘시간을 맛보는 여행’을 콘셉트로 숙박시설과 생산자를 연결하는 관광계획, 한 끼의 아침밥을 위해 하루 종일 섬을 돌며 생산자와 만나고 식재료를 구해서 맛있는 아침밥을 맛보는 여행
카레 명작극장	아와지섬 각 지역의 소재를 활용한 카레를 통해 사람·물건·일의 매력을 발산하는 프로젝트.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 즉 창업 교육과 지원이 꾸준하고 자발적인 주민 학습모임을 축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국내 대부분 창업 지원이 개인/개별사업체에 창업자금 직접 지원이나 융자혜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지원이 연계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같은 필요와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사전에 프로젝트의 형태로 충분히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즉, 취창업의 결과 보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만나고 일할 것인지, ‘일하는 형태’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정책사업으로 이 과정을篤심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주민, 전문가가 결합한 지역협의회와 사무국의 역할이 컸다. 사업 종료 이후 ‘아와지 하타라보섬 협동조합’이 그 경험과 역할을 계승했다. 지역의 민과 관, 개인과 기업, 단체들을 연결하고 섬 지역의 ‘온화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찾아 이주해오는 도시의 청년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표Ⅳ-7] 아와지 하타라보섬 협동조합 사업 영역 (하타라보지마 홈페이지, 2021)

사업영역	내용
‘일하는 힘’을 만드는 교육사업 : 지역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실시, 섬의 온화한 시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장소 만들기	- 팀 빌딩 및 커뮤니케이션의 교육 - 섬의 농업생산자와 함께하는 농업경험 또는 견학 - 실천에 뿌리 내린 지방창생 프로그램 - 환경과 발상의 전환 모색 - 자신들의 일하는 방법, 생활방법 생각하기 - 지역에서의 일하는 방법, 생활방법 생각하기
‘일하는 장소’를 만드는 노마드 사업 : 리모트워크 지원, 코워킹공간 운영, 장소, 시간,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일 만들기	- ‘유목민 마을’을 비롯한 일하는 거점 만들기 - 개인에서 기업까지 다양한 연결 창조 - 해외 예술·문화 등 타 분야와의 교류 - 위성 사무실이나 합숙장소 제공 -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노마드 작업자 강좌 -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강좌
‘전하는 힘’을 만드는 홍보사업 : 기업, 단체, 지역의 정보 발신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지역 내 다양한 분야 정보 교류 지역 활동 기자, 작가 양성	- 전달해야 하는 지역의 매력, 가치 발견 - 연간 홍보전략 수립 - 웹사이트, 미디어 운영관리 - 기사 작성, 정기적인 업데이트 - 홍보작가 육성 및 홍보팀 구성 - 지역 기업/단체와 홍보작가의 매칭

2. 국내 사례

1) 충남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가. 지역 배경 및 정책 환경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부 끝단으로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북 군산시와 마주보고 서해와 접하고 있다. 면적은 366.13km²이며 2개 읍, 11개 면이 있다. 서천군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26,410가구 53,143명(내국인 51,866명)이다. 2000년 75,259명에 비해 31.08% 감소한 수치로 2019년 인구 기준 전국에서 총인구 감소 비율이 네 번째로 높다.¹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인구밀도는 145.15명/km², 세대 당 인구 1.94명이다.(서천군청, 2021)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서천군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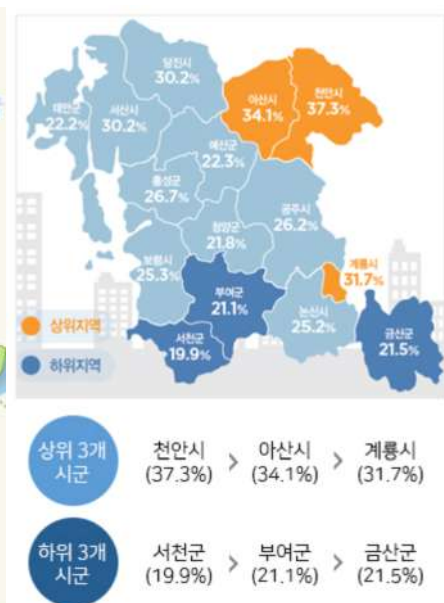
[그림Ⅳ-8]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행정구역

(출처: doopedia.co.kr)



[그림Ⅳ-9] 충청남도 시군별 청년비율

(출처: 서천군청 홈페이지, 2018년말 기준)



2018년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서천군의 핵심 비전을 ‘더 없이 좋은 가족, 행복이 평등한 서천’으로 세우고 가족행복도시를 표방했다.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으로 보고 각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정책 핵심 대상을 청년으로 보고 2018년 12월 ‘서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표Ⅳ-8] ‘청년에게 기회를! 서천에는 활력을!’을 비전으로 참여주체로서 청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지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2019년 6월에는 지역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1회 2019년 서천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또한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재

14) 2000년 대비 2019년 총인구 감소 비율이 전남 고흥(-35.7%), 전남 보성(-32.5%), 경북 의성(-31.1%)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원 확보를 위해 2018년 12월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기금을 설치했다. 청년기금은 서천군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서천군 청년정책 4개 전략과 과제를 일별해보면 전략 취지에 적합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 사업이 눈에 띈다. 특히 청년을 정책 과정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할당제 도입,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생태계 구축 및 각종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사업, 청년기금 조성 및 활용방안까지 지역과 청년의 삶을 고려한 구체적인 노력과 관점이 돋보인다.

[표Ⅳ-8] 서천군 청년정책 비전 및 사업 현황(2020년 기준) (출처: 서천군청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비전	청년에게 기회를! 서천에는 활력을!		
목표	참여주체로서의 청년활동 기반 마련 청년정책 지원 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		
전략 4개 분야 35개 과제	Ⅰ. 청년참여강화 및 기반 마련	Ⅰ-1. 서천 청년기금 설치	기획감사실
		Ⅰ-2. 청년정책분야 공모사업 추진	기획감사실
		Ⅰ-3. 체납 징수단 운영	재무과
		Ⅰ-4. 지역대표축제 청년할당제 추진	관광축제과
		Ⅰ-5. 청년활동 공간 조성	지역경제과
		Ⅰ-6. 설해대책 추진 근로자 청년할당제 실시	건설과
		Ⅰ-7. 청년위원 할당제	기획감사실
	Ⅱ.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Ⅱ-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과
		Ⅱ-2. 서천군 대규모 일자리 한마당 개최	지역경제과
		Ⅱ-3. 청년인재와 지역기업 만남 프로젝트	지역경제과
		Ⅱ-4.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역경제과
		Ⅱ-5. 기업맞춤형 청년 인력 양성	지역경제과
		Ⅱ-6. 청년 창업 및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과
		Ⅱ-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경제과
		Ⅱ-8.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농정과
		Ⅱ-9. 청년 CEO 50명 양성	지역경제과
		Ⅱ-10.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	농업기술센터
		Ⅱ-11. 청년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환경보호과
		Ⅱ-12. 청년 친화 강소기업 육성	투자유치과
		Ⅱ-13. 근로자 공동기숙사 건립	투자유치과
	Ⅲ.	Ⅲ-1. 청년 문화축제 개최	관광축제과

	청년문화 생태계 구축	Ⅲ-2. 청년 모시 스튜디오 운영	관광축제과
		Ⅲ-3. 청년예술유람단 옴로와 프로젝트	문화체육과
		Ⅲ-4. 장항 문화회관 건립	문화체육과
		Ⅲ-5. 한산 프리즘 프로젝트	문화체육과
	Ⅳ. 청년 생활안정 지원	Ⅳ-1.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	기획감사실
		Ⅳ-2.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해양수산과
		Ⅳ-3. 이주청년 주거(빈집) 정비사업	지역경제과
		Ⅳ-4.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도시건축과
		Ⅳ-5.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도시건축과
		Ⅳ-6. 청년 건강검진 지원	보건소
		Ⅳ-7. 스마트 건강 코칭 사업	보건소
		Ⅳ-8. 청년 안전보험	안전총괄과
		Ⅳ-9. 군민 안심 비상벨	안전총괄과
		Ⅳ-10. 청년 자살예방 사업	보건소
2021년 청년기금 주요사업	·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전월세 및 매매 거주 청년 주거비 지원 ·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서천군 이주 무주택 청년에게 셰어하우스 임대 · 청년 Cheer-up(취업) 지원사업: 면접수당-취업성공수당-근속수당 지원 · 청년(주민) 기업 육성지원: 청년 CEO 50명 양성 및 창업지원금 지급 · 마을 협동형 청년 커뮤니티 벤처 창업지원 · 이주 청년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 전체 주택(빈집) 수리비용의 50% 이내 지원, 최대 10,000천원 · 유희공간 활용 예비 창업자 공간지원 사업 · 도시청년 초보농부 창업기반 조성: 청년 귀농인에 창업 영농기반 조성 지원 · 영세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지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농기계, 농산물 가공, 재배기반 시설 등 지원		

한산면은 서천군 동남쪽 끝, 부여군 경계에 있다.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산면 인구는 1,449세대 2,546명이다. 충남 136개 면 가운데 인구로는 95번째(하위 69.9%)로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면적은 25.0km², 인구밀도는 101.8명/km²이다. 20~30대 청년인구 비율은 10.9%, 고령화율은 47.8%에 달한다. 충남 면 지역 평균보다 청년인구 비율은 3.3% 낮고 고령화율은 11.3% 높다.

[표Ⅳ-9] 충남 면부 평균과 한산면 현황 (충남통계연보, 2020: 2019년말 기준)

	면적	인구	세대당 인구	밀도	고령화율 (65세 이상)	청년인구 (20~39세)
면부평균	48.1km ²	4,663명	1.97명	113.5명/km ²	36.5%	14.6%
한산면	25.0km ²	2,600명	1.80명	104.0명/km ²	47.8%	10.9%

면적이나 인구가 비교적 작은 지역지만, 한산면은 한산세모시, 한산소곡주의 본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500여 가구 중 250여 가구가 소곡주를 빚는다. 한산모시새벽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면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5일장이 서고 면 소재지 상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월남이상재선생생가, 한산모서관, 신성리갈대밭, 한산향교, 공작선부채 등 전통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찾았던 지역이다.

나. 지원 주체: (주)자이언트

‘삶기술학교’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자이언트(이하 ‘자이언트’)다. 자이언트는 2013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신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창업한 IT 소셜벤처기업으로 본사는 충남 아산에 있다. ICT 솔루션을 접목한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기획을 주로 하는 ‘지역문화자원개발회사’이다. (자이언트 홈페이지)

자이언트가 한산면과 만난 건 2017년 제28회 한산모시문화제에 청년기획단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주로 천안, 아산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자이언트 활동을 눈여겨 본 감독님의 추천으로 한산모시축제에 함께하게 됐다. 당시 서천군에서는 한산모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문화관광축제에 탈락하는 바람에 청년문화기획단 및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새로운 시도를 꾀할 때였다.

자이언트는 한산모시문화제에 참여하면서 한산면의 지역 자원과 사람들, 일하는 방식에 매력을 느꼈다. 여러 전통문화 및 관광지, 자연환경은 도전해볼만한 자원으로 느껴졌다. 지역의 리더그룹들은 외부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해볼 수 있게끔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다. 덕분에 자이언트 멤버들은 한산모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도시에서는 주로 관공서와 일을 많이 하면서 문화행사 대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과 행정업무가 많고 주도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서천군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시도해볼 수 있었다. 일이 끝나고 난 뒤 성취감과 자신감이 컸다. 자이언트 외에도 여러 청년 그룹들이 함께했다. 그때 만났던 인연들 대부분 삶기술학교를 운영할 때 교육 자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산소곡주 축제, 다음해 한산모시문화제로 인연과 기회가 이어졌다.

“사실 저희가 도시에서 일할 때는 갑을병정 중에 정이었거든요. 위에서 짜여진 판에서 작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일을 할 때마다 올라가야 하는 단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작은 일을 하는데도 제약이 많았죠. 대학생으로 창업했으니까 뭔가 젊고 혁신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기존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 갈등이 많이 되고 힘들었어요. 창의적인 집단이 되고 싶었는데 관공서 대행업체가 된 거 같고 일이 끝나도 성과는 저희 몫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한산모시문화제를 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담당자 분이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해봐하고 판을 깔아주신 거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하니까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재밌게 했어요.” - 삶기술학교 김혜진 공동체장 (연구진 인터뷰 중)

지역의 가능성과 매력을 느낀 자이언트의 김정혁 대표는 2018년 2월 한산면 소재지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 ‘아트스테인 노랑달팽이’를 열었다. 이후 한산면의 공간과 전통문화 기술에 착안하여 청년들이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삶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삶기술학교’를 구상했다. ‘삶기술학교’ 기획이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삶기술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1년 6월 현재, 자이언트 13명 임직원 중에 4명이 서천군 한산면에서 살면서 ‘삶기술학교’ 및 관련 사업 진행, 지역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기회로 ‘한산모시문화제’라는 축제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 때 청년기획단을 꾸리면서 한산이란 지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전통기술이 풍부한 도시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산 모시짜기, 소곡주, 공작부채, 대장간 기술 등 여러 가지 유·무형 문화제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전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 할 필요성을 느꼈죠. 두 번째는 시골에서의 삶, 자립의 기술에 대한 관심 때문이에요. 하이테크, IT기술이 익숙한 청년들에게 불편하지만 지속가능한 슬로우테크를 제안해보고 싶었어요. 시골에 살며 직접 삶에 관련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기술을 배우면 어떨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죠. 세 번째로는 기회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청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도시에는 경쟁도 많고 치열하지만 한산은 존재 자체 하나가 다 소중하게 인정받아요. 이 곳에 있다 보면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영양분을 나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 (주) 자이언트 김정혁 대표 (삶기술학교, 2019)

다. 청년 이주 및 정착 지원 활동: ‘삶기술학교’

삶기술학교는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며 나만의 삶기술로 더불어 사는 자립공동체를 추구한다. 도시의 삶기술과 마을의 삶기술을 교환하는 ‘삶기술 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 청년들의 자기실현을 돕는다.

[그림 IV-10] 삶기술학교 추진방향 (출처:행안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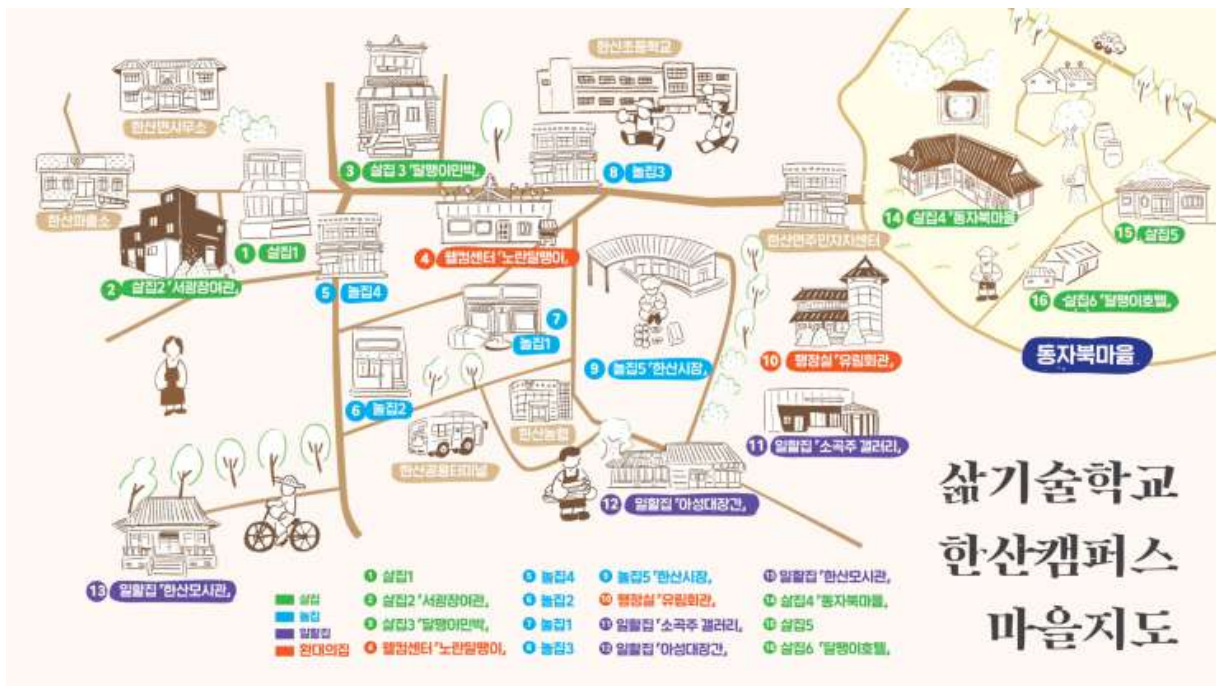


삶기술학교 과정은 기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루살기’와 ‘한달살기’,

3~12개월의 ‘삶기술학교 정규과정’이다. ‘하루살기’는 1박 2일 동안 삶기술학교를 공간을 둘러보고 핵심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한달살기’는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삶기술학교에 입학해서 관련 교육을 받고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후 참여자가 원하면 지역에서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도시청년에게 한산면에서의 삶과 기술, 전망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몬드라곤 대학교와 협력하여 팀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고 마을에서 자립하기 위한 삶과 일을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운영했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비와 거주공간, 주거비용을 제공한다.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청년마을 사업)사업에 선정되고 8월부터 ‘하루살기’와 ‘한 달 살기’ 3개 기수를 운영했다. ‘나만의 삶을 기술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의 매력과 대안적 삶을 찾는 청년을 모집했다. 세 차례의 ‘한 달 살기’ 동안 각 30명씩 총 93명이 참여했다. 그 가운데 46명이 지역에 남았다. 15명은 주소지를 이전했다. 한산면내 10개의 유휴공간을 DIY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 놀자리, 살자리로 되살렸다. 그 공간을 바탕으로 여행사, 제빵사, 패션브랜드 등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

[그림 IV-11] 삶기술학교 빈집/빈공간 프로젝트; 공간 DIY(한산한가) 지도 (출처:행안부 홈페이지)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은 종료됐지만 충청남도과 서천군의 자체 지원으로 ‘삶기술학교’를 계속 운영했다. ‘취향이 있는 삶, 배움이 있는 삶, 혁신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상반기 12주 기간의 ‘삶기술학교 정규과정’과 하반기 ‘○○하면서 한 달 살기’ 과정을 진행했다. 상반기 정규과정에는 30명이 참여했다. 2019년 한달살기 참여자, 하루살기 참여자가 연계되기도 했다. 2019년에 조성한 공간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간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구축하는 비즈니스 설계 및 멘토링, 전문적인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실험비와

코칭,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후 지역 정착 및 창업을 원하는 경우 서천군 청년정책기금으로 후속사업 및 일자리를 연계했다.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한 ‘한 달 살기’는 10가지 테마를 주제로 ‘일하면서 한 달 살기’로 진행됐다. 빈집재생, 아트 레지던시, 반려동물, 돌봄교육, 독립출판, 로컬푸드, 소곡주 요가, 사진전, 웹드라마 제작 등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의 형태를 제시하며 참가자를 모집했다. 2020년 정규과정, 한달살기, 하루살기 참가자까지 모두 88명의 청년이 한산면을 찾아왔다. 2019년 참가자와 이주민을 포함하여 청년 63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15개 창업팀이 생겨났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잠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7월 현재 일하면서 한 달 살기 7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 비즈니스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소셜마케터, 콘텐츠크리에이터, 푸드크리에이터, 공간크리에이터, 호텔리어, 스페이스 플래너로 지역에서 일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월 활동비 200만원과 세어하우스를 제공한다.

[그림Ⅳ-12] 삶기술학교 교육체계 (삶기술학교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한편 2019년에 이어 2020년도 지역의 유희공간이었던 인쇄소와 여관, 식당을 재생했다. 행안부 ‘지역자산화 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역 여관을 커뮤니티호텔 H로 리모델링했다. 외부에 맡기지 않고 순수하게 서천군 지역 업체와 자이언트, 지역 공동체

가 건축캠프를 통해 스스로 기획 및 설계를 하고 직접 공사에 참여했다. 앞으로 커뮤니티 호텔H는 청년 주거 지원 플랫폼으로 삶기술 교육 청년들을 위한 단기/장기 레지던스 뿐 아니라 관광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로서 비즈니스를 해나갈 예정이다. 지역의 무지개 식당은 빵가루를 활용한 돈가스 식당과 유기동물 보호 카페로, 지역 인쇄소는 청년 독립서점과 사진관으로 재탄생했다.

[표Ⅳ-20] 2020년 삶기술학교가 인큐베이팅한 경제공동체 (삶기술학교, 2021)

프로젝트 명	내용
리트릿 관광 상품 운영 느린여행사	- 한국관광공사 5천만원 사업자금 확보 완료 - 리트릿 관광 상품 서비스 판매 중
소곡주 리브랜딩 사업 제3지대	- 소곡주 리브랜딩 사업을 5천만 원 사업 확보하여 운영 중 - 2021년 규정 목표로 제품 개발
마을의 대표 예술 교육 그림한담	- 마을주민 개인 교습 3명 이상 활동 진행 중 - 개인 교육 사업 강화를 위해 자격증 공부 병행
지역재생 업사이클링 건축업체 어글리플레이스	- 지역 청년 대상 업사이클링 건축캠프 D.I.Y 교육 제공 - 한산면의 대표 건축 시공 청년 업체로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재생의 관점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운영 중
소곡주 빈병을 업사이클링한 유리공예	- 소곡주 빈병을 활용하여 상품(티스폰 등) 개발 중 - 소곡주 리브랜딩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주 술잔 연계 판매 예정
소곡주 지게미를 활용한 한끼제빵소	- 서천군 시내 특화시장에서 창업하여 베이커리 운영 중 - 서천 특화시장의 대표 인기상품으로 오전 내 모든 제품 소진되며 성황리 운영 중
한산면 게스트하우스 노란달팽이	- 한산면 한달살기, 하루살기 등 관광 상품 운영을 위한 대표 숙박공간으로 운영 중 - 2020년 10월 현재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중
돌봄카페 한산한 오늘	- 한산면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카페로 삶기술학교의 공식 교육공간으로 운영 중 - 한산한 오늘 운영단체인 해피캐퍼스는 한산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교육 사업 운영 중
마을사진관 기억상사	- 한산면의 대표적인 사진관 운영을 위해 공간 리모델링 및 11월 오픈 완료, 운영 중 - 2020년 하반기 사진찍으며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숙박 마을호텔 커뮤니티 호텔 H	-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서고아장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8개실의 청년 주택으로 리모델링 공사 - 한산면 대표적인 숙박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소곡주 돈가스 마로스 키친	- 한산면 (구) 무지개식당에서 소곡주 지게미 빵가루로 만든 돈가스 식당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오픈 완료 운영 중 - 2020년 요리하며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을 활용한 의류 창업 로컬러	- 한산면의 지역 공간 이미지를 활용한 의류 제품 제작 준비 중 - 한산면 커뮤니티호텔 H와 연계한 상품으로 판매 예정
지역 대표 디자인 기업 아트팩토리피플	- 삶기술학교의 대표 협력 청년기업으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디자인 결과물을 창출하며 협력 중 - 2020년 하반기 판교 캠퍼스를 운영하는 삶코치장의 역할도 공동으로 수행 중
유기동물 교육 체험 함께쓰담	- 사람들에게 길러지다 버려진 동물들을 분양받아 키우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정서발달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연계하여 동시 운영 중 - 국립생태원과 연계하여 추가 사업 논의 중

라. 활용 정책: 행정안전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외

삶기술학교는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청년마을) 사업으로 시작했다. 지역 산업 위축, 공동체 붕괴,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역사회가 쇠퇴하고 지방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2019년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 등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는 전국 12개 지역 청년마을을 선정했다. 청년마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1개 단체에 1년 총 9억의 사업비를 용역 형태로 지원했다. 사업비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 삶기술학교가 2019년 한 해 동안 청년 93명 입교, 47명 지역 정착이라는 성과를 내자 2020년부터는 충청남도과 서천군이 이어서 삶기술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삶기술학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를 설득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한산면에 여러 후속 사업을 연계 지원했다. ‘지역자산화 사업’으로 지역의 오래된 여관을 개조해서 ‘마을호텔 H’를 만들고,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과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을 활용해 도시 청년들의 원격근무를 지원하는 ‘노마드언택트센터’를 짓고 광대역망을 구축했다.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살이큐레이션 서비스, 한산 소곡주 리브랜딩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실험하고 있다.

한편 삶기술학교 한달살기와 정규과정을 거쳐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나 세어하우스, 동아리, 창업 지원 등 서천군의 여러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한다.

마. 시사점: 지역사회의 적극적 지원, 지역 학습과 참여, 관계맺기 과정

삶기술학교를 운영하는 (주)자이언트도 서천군 한산면에 연고가 없는 청년 기업이다. 2017년부터 ‘한산면 모시문화제’에 기획, 참여하면서 알게 된 한산면 주민자치위원장, 사무국장, 면장, 부면장, 모시조합장, 소곡주 조합장 등 지역 리더들이 삶기술학교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다. 지역 리더들 역시 쇠락해가는 지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청년 세대의 유입과 정착, 그를 통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삶기술학교의 시도를 도왔다.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알선으로 빈집, 유림회관, 오래된 대장간 등 청년마을 선정 이전에 유휴공간 10곳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청년마을 심사 과정에도 함께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환대와 협력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후 지역 리더와 행정은 ‘삶기술학교 공동발전위원회’로 삶기술학교 입학식부터 성과 공유회, 사업 설명회, 간담회, 주민잔치 등 행사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외지 청년들을 경계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갈등으로부터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다.

“한산모시문화제를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지역주민 한 분 한 분 알기보다는, 주민자치 위원장님, 면장님, 부면장님, 모시조합장님, 소곡주조합장님 등등. 저희가 전통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려면 이분들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3년 정도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여기 정착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큰 힘이 되어주셨죠. 반대 의견을 가진 다른 주민 분들이 있으면 청년들한테 말 못하게 대신 싸워주시고 하셨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누가 지역을 이끌어 갈 거냐’ 하면서 설득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빈집 구할 때나 뭐 할 때 항상 같이 다녀주셨어요. 부면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요. 저희는 여길 잘 모르잖아요. 완전 외지 청년이다보니까. 저희 행안부 사업 발표할 때도 같이 가시고요. 농촌 지역은 폐쇄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시새벽시장이라고 엄청 큰 시장이 열려서 그런지 외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비교적 마을 분들 인식도 열려 있으신 거 같아요.” - 삶기술학교 김혜진 공동체장 (연구진 인터뷰 중)

삶기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한산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입학식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청년들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후 프로젝트 발표회, 성과 공유회, 간담회, 공간 오픈행사 등 삶기술학교의 모든 행사는 주민들을 가장 먼저 초대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추진한다. 삶기술학교 참여자들은 만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 인사하기가 약속이다. 삶배움워크숍의 대부분은 전통 기술을 가진 지역 주민을 강사로 모셨다. 지역의 독거노인 김장담그기, 주민자치 주민총회, 마을청소 등 지역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마을호텔H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업체를 전혀 쓰지 않고 지역 업체와 주민, 삶기술학교 참여자들이 건축캠프 형태로 진행했다. 비용과 시간, 소통하는 과정에서 품이 훨씬 많이 들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인정하고 애정하는 어엿한 공공공간이 되었다. 삶기술학교가 자체 공간을 마련하자 그동안 지원사업이 끝나면 어차피 지역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풀지 않던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었다.

한산면 장기수 부면장은 “처음엔 진짜 그리 하겠느냐고 의심하던 주민들도 청년들이 보여 준 결과들을 보고 믿게 됐고 이젠 서로 돕겠다고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들이 살 집, 활동 공간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빈집이나 빈 가게를 알아서 고쳐 쓰라며 내주기 시작했다. 자이언트의 아지트이자 민박과 카페를 겸한 ‘아트스테이 노란달팽이’도 한 주민이 5년 동안 무상으로 쓰라며 맡긴 것을 고쳐 만들었다. 4대째 내려오는 마을의 명소 아성대장간을 비롯해 10곳 넘는 공간이 공사를 하거나 준비 중이다. 자이언트의 활동가 박소산(30)씨는 “주민들이 항상 도울 거 없느냐고 물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어느새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며 “옥수수를 비롯해 각종 농작물에 반찬까지 자식처럼 챙겨준다”고 고마워했다.

한산마을은 최근 여러 공모전에서 뽐히면서 도시청년 시골마을 정착하기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자이언트는 지난해 문화콘텐츠 기업 2곳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전략산업특화과제지원 사업에 지원해서 정식 사업에 선정됐고, 지난해 여름부터 6개월 동안 방연옥 명인의 한산모시짜기 과정을 영상과 소리만으로 구성된 18개의 ASMR(자율감각쾌락반응)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다. 올해 초에는 행정안전부의 삶기술학교 프로젝트 운영 주체 공모전에 참가, 6개 팀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한산마을 청년들,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주민 대표가 발표회에 직접 나와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청년들과 한 팀이 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청년이 산다, 시골이 살아났다” 2019.10.26. 기사)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은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돌봄강사나 방과후 강사, 소곡주 리브랜딩 및 온라인 판매, 지역 고령자 돌봄케어서비스 개발, 도시재생 사업 골목길 정비, 홍보 영상 제작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더 많은 일과 활동, 사업 기회로 이어졌다.

“지금은 농업 외의 수익이 있어서 사실 경제적으로 크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도시에서 말하자면 비정규직인데 시골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수확엔 일손이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일을 찾을 수 있어요. 도시에서처럼 자본이 주는 풍요로움은 얻을 수 없지만 시간이 많으니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기회들이 늘어나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 삶기술학교 참가자 (삶기술학교, 2019)

바. 과제: 지원 주체의 안정적 기반과 지속가능성 확보

(주)자이언트 본사는 천안에 있다. 삶기술학교를 운영하는 팀이 지사 형태로 서천군 한산면에 상주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는 한산면에 정착해서 삶을 꾸려나갈 의지가 있다.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고 안정적인 공간 기반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확장하고, 한산면에서 일하는 인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삶기술학교 운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삶기술학교가 본래 수익사업이 아닌데다가 그나마 행안부의 ‘살기 좋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용역 형태로 진행되어서 담당 관리자의 인건비와 최소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후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됐다.

삶기술학교 운영과 그를 통한 청년의 유입, 지역 활성화로 인한 유익과 의미가 충분하지만 그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주체의 확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한다. (주)자이언트의 경우에는 한산소곡주의 리브랜딩 온라인 판매와 마을호텔 H와 디지털노마드엔택트센터를 통한 리모트워크 중개서비스, 주무기인 ICT를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 등으로 지사 운영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삶기술학교 운영과 같은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안정과 그 역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지역에서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확장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자이언트는 조만간 삶기술학교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독립 등록하고 지역으로의 청년 유입과 안내, 교육 등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삶기술학교를 통해서 지역에 정착한 여러 창업 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얼마만큼 지역 주민의 요구를 잘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관계하느냐가 과소화된 면 단위에서의 창업·창직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시범마을’

가. 지역 배경 및 정책 환경

의성군은 경상북도 중앙에 위치한다. 위쪽으로는 안동시와 예천군, 동쪽은 청송군, 남쪽은 군위군과 구미시, 서쪽은 상주시와 인접하고 있다. 의성군 전체 면적은 1,174km²으로 1개 읍, 17개 면이 있다. 인구는 2021년 5월 말 기준 28,699세대 51,161명이다. 2000년 인구 76,648명 대비 2019년 인구 53,237명으로 31.1% 감소했다. 인구 감소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인구밀도는 45명/km², 세대 당 인구는 1.9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1,005명으로 고령화율이 41.1%에 달한다.

[그림Ⅳ-13] 경북 의성군 위치 (의성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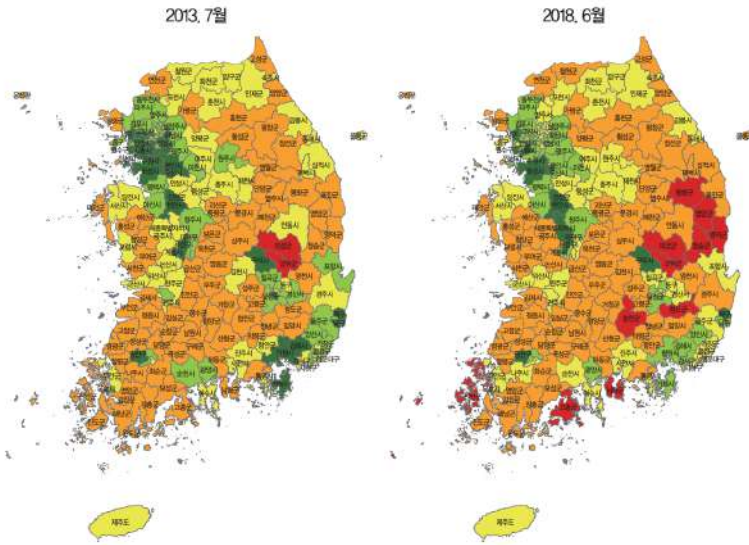


의성군은 가로로 누운 땅콩 모양을 하고 있다. 중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의성읍을 비롯한 10개면이 위치한 동부와 7개 면이 있는 서부로 나뉜다. 동부는 산지가 많고 서부는 평야 지역이다. 안계면은 서부 7개면(인사, 다인, 단북, 단밀, 구천, 비인, 안계면)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이다. 면적은 43.50km², 법정리 9개리, 행정리 24개리로 이뤄져 있다. 2021년 5월 기준 2,504세대 4,612명이 살고 있다.

2014년 일본 마쓰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내용에 착안하여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한민국 지방소멸지수¹⁵⁾를 발표했다. 지방소멸지수 값이 1.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18년 6월 기준 전국 수준 소멸위험지수는 0.91을 기록했다. 지방소멸지수 0.5인 지자체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지방소멸지수 0.2 이하를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전국 11개 지역 중에 7개가 경상북도에 있다. 그중 의성군이 지방소멸위험지수 0.151로 전국 1위로 꼽혔다. (한국고용정보원, 2018)

15)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20~30대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수치다. 고령인구 대비 젊은 여성 인구비가 0.5 이하 일 경우 고령인구보다 출생인구가 적어서 지역의 인구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림Ⅳ-14] 전국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2018)



이에 경상북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민선 7기 도지사는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가는 농촌으로!’를 슬로건으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성군은 지방소멸 1위 지자체라는 상징성으로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안계면 일대에 청년 일자리와 주거단지, 복지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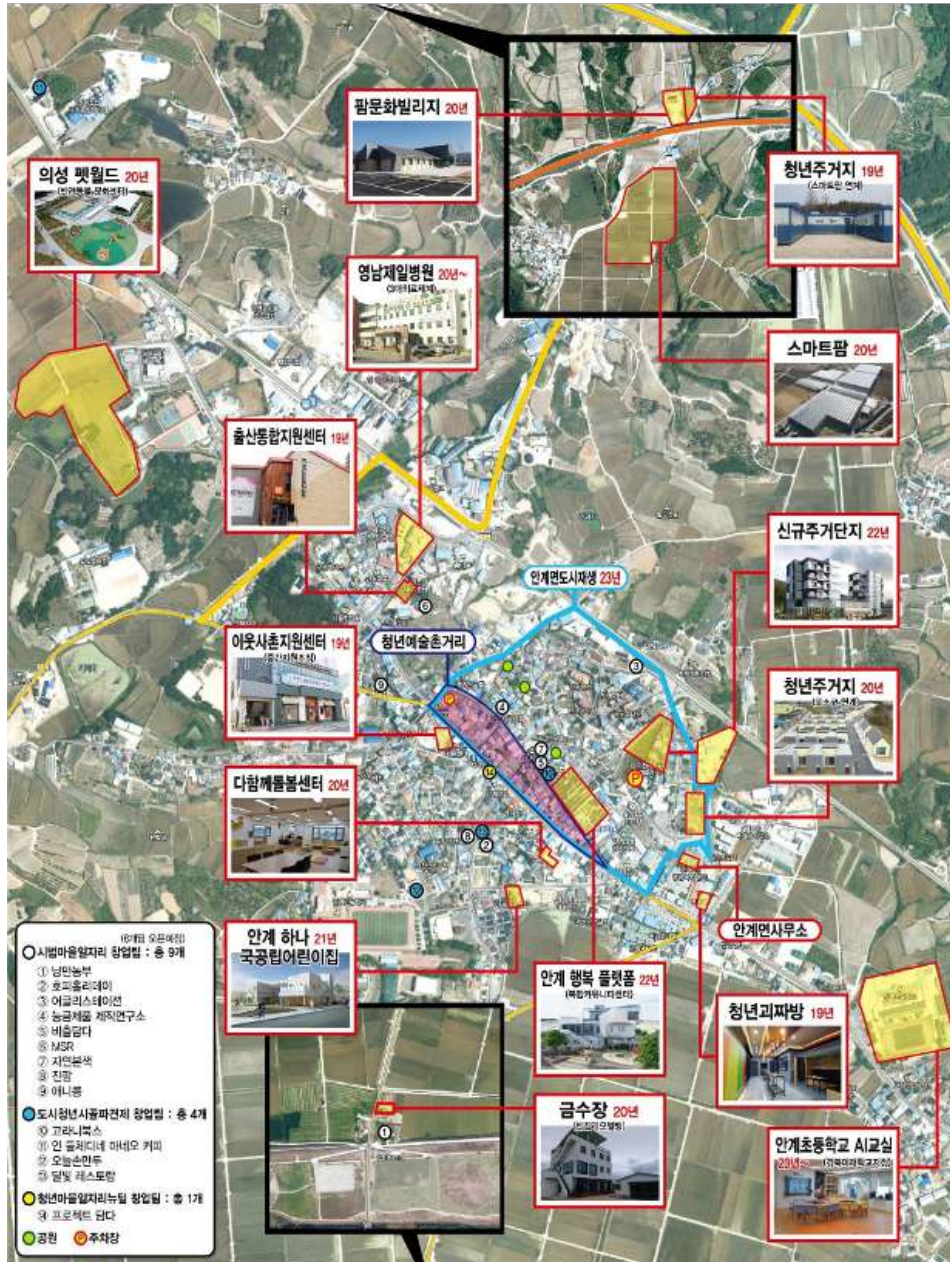
의성군은 2018년 9월 ‘청년유치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 및 농촌혁신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기본구상(안)’을 수립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안계면 중심 서부권 7개면 일대에서 5대 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한다. 총 예산이 무려 1,220억 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은 경상북도 기획사업이지만, 이 가운데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소지역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지원 사업 등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표Ⅳ-21] 이웃사촌시범마을 개념도

지속 발전 가능한 새바람 행복마을
(2019~2022년, 의성군 안계면 일원)

청년 일자리 및 주거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 개선	육아·교육·의료·문화 확충
스마트팜(딸기) 청년농부 육성 청년 창업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 도시청년 의성 체험 기회 제공 LH 청년주거단지 조성 청년 1인 주거시설 확충	이웃사촌지원센터 안계행복플랫폼 조성 팜문화 빌리지 조성 안계 청년과짜방 운영 3대 생활문화 혁신 에너지 자립마을 및 골목정원 조성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안계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안계초 KT-AI 스쿨 구축 AI 어린이 공원 조성 3대 필수의료체계 내실화 농촌 경관작물 재배

[그림 IV-15]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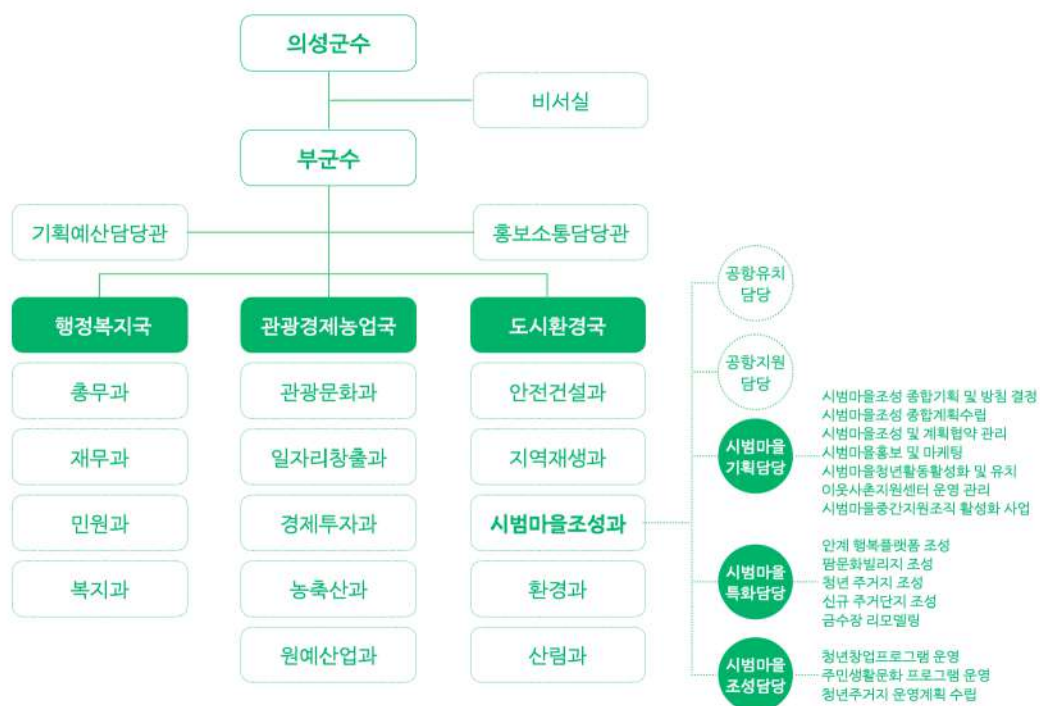
이웃사촌시범마을은 경상북도 도지사의 1호 공약사업으로 초기 적극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면서 경상북도청 미래전략기획단 내부에 이웃사촌시범마을팀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웃사촌시범마을팀은 의성군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필요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다. 도지사는 매주 1회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의성군청 역시 2019년 1월 도시환경국 산하에 ‘시범마을조성과’를 신설했다. 시범마을조성과는 5개 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3개 계(시범마을조성계, 시범마을특화담당계, 시범마을조성담당계)가 시범마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나머지 2개 계는 의성군 신공항 유치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시범마을조성과는 소관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한편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총괄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인 의성군이웃사촌지원센터와 소통, 협력하면서 매주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군수는 월 1회 혹은 수시로 관련 부서 담당자를 모아서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사업을 위해 도청과 군청에 총괄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주무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시각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각 부서별 사업을 조정하고 협력하면서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광역과 지자체, 민과 관, 청년 사이 협치의 가능성과 효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림Ⅳ-16] 의성군 행정조직도(2019) 및 시범마을조성과 주요 업무



하지만 2020년 초 경북도청이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전담부서인 이웃사촌시범마을팀을 해체하고, 관련 업무는 새로 신설된 아이여성행복국 산하 인구정책과 이웃사촌시범마을팀으로 이관했다. 의성군청 내에서도 시범마을조성과는 해체되고 이웃사촌시범마을의 각 사업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시범마을조성과는 공항과로 개편되었다. 이웃사촌시범마을 자체가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무부서가 해체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하지만,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해체는 시기상조였다는 의견도 있다. 거버넌스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민관의 협업구조가 약화되고 시범마을 사업의 초기 추진동력과 시너지 효과가 감소했다는 평가가 있다.

나. 지원 주체: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2019년 3월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이하 이웃사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협치 중간지원기관인 ‘의성이웃사촌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워낙 큰 예산이 투입되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획된 이웃사촌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역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웃사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자문 및 지원, 주민 이해 증진, 주민역량 강화, 지역단체 간 네트워킹, 도시청년단체와의 교류 증진, 기타 군정 자문의 역할을 한다. 또한 수탁법인인 함께이룸이 이웃사촌지원센터 뿐 아니라 ‘안계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의성군 미래교육지원센터’,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도 함께 위탁운영하고, 센터장이 겸임하면서 각 센터 사업간 연계협력이 용이하다.

[표Ⅳ-22]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의 비전 및 목표 (의성군이웃사촌지원센터, 2020)

비전	청년이 찾는 안계, 지속 가능한 의성	
목표	지역혁신,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	
추진전략	통합적 지원전략, 권역 단위 접근 전략	
추진분야 및 과제	공동체 활성화	청년동아리 모임 운영 지역 주민 원탁회의 개최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 주민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주민자치, 행복마을만들기 추진 주민대표, 청년단체 합동워크숍 추진
	청년유치 지원	청년시범마을의 홍보 도시청년단체 팸투어 실시 도시청년단체와 MOU 체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 적극적 활용 도시청년, 지역에서 먼저 살아보기 추진
	도농연계 지원	소비자 조직과의 연계 강화 도시 지역과 상생교류협약 추진 테마 중심의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도시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공공급식과 연계한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청년정착기반 조성	지역재생사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지역농업인 단체와 연계한 청년농부 육성 민간기업 CSR과 연계한 친환경 농장 조성

의성군이웃사촌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회계 등 사업 운영을 관리 지원하는 경영지원 팀원을 제외 하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 사업을 각각 한 사람이 담당하는 셈이다. 청년유치 지원과 정착기반 조성, 도농연계까지 한 사람이 하기엔 과도한 업무이다 보니 실제 사업은 다시 운영 단체를 공모, 선정해서 위탁을 준다. 하지만 의성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한 주체가 없어서 결국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진행했다. 2020년 의성 살아보기 사업인 ‘청춘구행복동’은 (주)메이드인피플, ‘예술가 일촌맺기 프로젝트’는 (사)인디053에서 운영했다.

다. 청년 이주 및 정착 지원 활동: ‘청춘구행복동’

이웃사촌마을에서 청년을 맞이하는 대표 사업은 ‘청춘구행복동’이다. 도시 생활에 지치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를 먼저 경험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은 살아보기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역자원과 주민 공동체를 만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지역에서의 전망을 탐색해볼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과 먼저 의성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선배 청년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Ⅳ-15] 청춘구행복동 프로그램 구성 (의성이웃사촌지원센터, 2021 재구성)



청춘구행복동은 2020년 1기와 2기, 2021년 상반기 3기를 진행했다. 각 기수마다 15명씩 참여했다. 2020년 1, 2기 모집 기간 중 무려 203명이 지원했다. 청춘구행복동 과정은 기본 6주 프로그램과 추가 4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본 6주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을 찾고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추가 4주는 6주 기본 과정을 마친 청년 중 지역에서 더 살아보길 원하는 청년들이 참가한다. 정착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지역 기관단체의 연계 자원을 알아보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2020년 청춘구행복동 1, 2, 3기 45명 참가자 중 23명이 안계면에 정착했다. 정착한 청

년들은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으로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고 취업을 한 청년들도 있다. 청춘구행복동 운영사무국 책임자인 청년 역시 지역에 정착했다. 창업을 준비하면 청년시범마을의 일자리 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창업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팀당 1억 원의 지원과 각종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착한 청년들은 이웃사촌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주거단지에 입주하기 때문에 주거문제도 해결된다. 청춘구행복동을 통해서 의성군에 정착한 청년들은 추후 지역 원주민 청년과 이주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들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다.

[표Ⅳ-23]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 창업팀 현황 (의성이웃사촌지원센터 블로그)

이웃사촌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창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팀을 이루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건물 리모델링 및 사업화 지원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낭만농부: 협업농장, 도농 청년간 교류사업 ② 호피홀리데이: 수제맥주 제조 판매 및 공방 운영 ③ 어글리 스테이션: 못난이 과일 유통 및 가공 판매 ④ 농금제품제작연구소: 사과나무 폐목활용 친환경 목재 소품 및 가구 제작, 공방 운영 ⑤ M.S.R: 인플루언서 광고 매칭, 온라인 플랫폼 의형제 운영 ⑥ 비출담다: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장 운영 ⑦ 자연본색: 지역특산물 활용 농수산물공식품 제조 및 판매 ⑧ 진팜: 의성제철 농산물 아트 제작 판매, 촉감체험놀이 제공 ⑨ 애니콩: 반려동물 수제 간식, 건강식품 개발 판매 및 애견 쿠키 클래스 운영 ⑩ 산들물푸드: 지역농산물 활용 조미제품 개발 (추진 중) ⑪ 장돌: 재래식 장 간편 포장 제품 개발 판매 및 파워콘텐츠 개발 체험교육 (추진 중) ⑫ 플레네이: 자연 특산물 활용 필로우 미스트 개발 판매 (추진 중)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창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외 타 지역 청년의 의성군내 정착 및 창업사업화 지원 - 1명당 3천만 원 자금 및 경영 자문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라니북스: 그림책 출판 및 전시 ② 인 돌체디네 마네오 커피 ③ 오늘손만두: 수제 만두전골 식당 운영 ④ 달빛 레스토랑: 요리 아카데미 및 양식 레스토랑 식당 운영
청년마을 일자리뉴딜 창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재생, 6차 산업 브랜딩 창업지원사업 - 1인당 1,5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젝트 담다: 비누 공예 및 제작 판매

라. 활용 정책

이웃사촌시범마을 자체가 통합적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었던 정책을 의성군 안계면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출산보육, 문화예술교육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압축적으로 시행해보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다.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청년 유치 등 5개 분야 41개 사업, 6개 장기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의성군 인구정책과를 중심으로 18개 부서와 4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표Ⅳ-24] 의성군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비전 및 사업추진현황 (대구경북연구원, 2021)

비전	지방소멸 극복 및 농촌 혁신 성장 모델 제시					
목표	일자리 주거 복지가 두루 갖추어진 청년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분야	연번	사업명	주관부서	성격	비고
	창농·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스마트팜 시설 및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기술원, 의성농업기술센터	H/W+S/W	준공
		2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인구정책과	S/W	추진중
		3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정책관	S/W	추진중
		4	의성 펫 월드 조성	인구정책과, 동물방역과	H/W	준공
		5	라이스 베이커리(안계쌀빵) 조성	인구정책과	S/W	추진중
		6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갤러리 카페 조성	인구정책과	H/W+S/W	추진중
		7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친환경농업과	H/W	공모준비
	매력 있는 주거단지 조성	8	스마트팜 연계 청년주거(컨테이너하우스)	인구정책과	H/W	준공
		9	포스코 연계 청년주거(모듈러주택)	인구정책과	H/W	준공
		10	금수장 리모델링(청년게스트하우스)	인구정책과	H/W	준공
		11	청년주거공간조성(청년주거단지)	인구정책과	H/W	실시설계
	의료·문화·교육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	12	청년이 살고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인구,도시,기술원	H/W+S/W	추진중
		13	안계행복플랫폼	인구,도시,기술원	H/W	실시설계
		14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과	H/W+S/W	추진중
		15	안계시장 현대화사업	의성군 자체	H/W	추진중
		16	팜문화빌리지 조성	문화산업과	H/W	준공
		17	안계 청년과짜방 운영	사회적경제과	H/W+S/W	운영중
		18	안계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증축	아이세상지원과	H/W	착공
		19	3대필수의료체계 내실화	보건정책과	H/W	공사중
		20	안계 초등학교 KT-AI스쿨	인구정책과	S/W	완료
		21	안계 AI 어린이공원 조성	인구정책과	H/W	준공
		22	안계 다함께 돌봄사업	아이세상지원과	H/W	준공
		23	출산통합지원센터	보건정책과	H/W	준공
		24	이웃사촌 시범마을 골목정원 조성	인구정책과	H/W+S/W	추진중
		25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	인구정책과	H/W	추진중
		26	안계평야 경관개선사업	의성군 농축산과, 기술센터	S/W	완료
		27	안계 우리밀 시범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과	H/W+S/W	추진중
		28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에너지산업과	H/W	추진중
		29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화예술과	H/W	추진중
		30	안계 가로길 조성	산림산업관광과	H/W	추진중
		31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관가로등 설치	인구정책과	H/W	추진중
		32	안계 식당문화 혁신 추진	관광정책과	H/W	검토중
		33	안계 주차문화 혁신 연구	인구정책과	S/W	추진중
		34	안계 간판문화 혁신 추진	도시재생과	H/W	추진중
	선·후 주민 간 마을공동체 강화	35	녹색자금 지원사업	산림산업관광과	H/W	공모준비
		36	이웃사촌 지원센터 운영	인구정책과	S/W	운영중
	청년유치 및 홍보	37	행복마을 자치사업(주민공모)	인구정책과	S/W	운영중
		38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인구정책과	S/W	사업확대
		39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플러스 사업	인구정책과	S/W	추진중
		40	도시청년 의성 살아보기	인구정책과	S/W	운영중
	기타	41	이웃사촌 시범마을 홍보	인구정책과	S/W	완료
	장기과제	42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과	S/W	완료
		43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벤처타운 조성	국토부 공모	H/W	-
		44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문체부 공모	H/W+S/W	-
		45	말산업 육성 지원(안계승마길)	농림부 공모	H/W+S/W	-
		46	이웃사촌 시범마을 술도가 조성	인구정책과	H/W+S/W	-
		47	이웃사촌 시범마을 행복공원 조성	산림산업관광과	H/W	-

전체 47개 사업 중 하드웨어 사업이 24개, 소프트웨어 사업이 13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복합사업이 10개를 차지한다. 주거단지와 생활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사업 개수와 예산 규모가 크다. 한편 청년유치와 홍보사업은 모두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이중 의성 팻월드 조성, 스마트팜 시설 및 청년농부 육성, 의성행복포레스트(지역발전투자협약),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은 별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 하나은행, KT, 포스코, LH 등 민간 투자도 활발하게 유치해서 협력하고 있다.

마. 시사점: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 지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은 이전에 없던 대규모 정책 실험이었다. 기존 대부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정책사업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웃사촌시범마을은 일자리부터 주거,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과제까지 두루 다루면서 통합적 지역재생을 추구한다. 16개 부서, 48개 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의성군 안계면이라는 소 지역에 투입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청과 의성군청에 주무부서가 설치됐고,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졌다. 각 부서 간, 민과 관 사이에 논의 및 협업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초기 정책 추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가 사업 완료 시점까지 지속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는 하드웨어 중심인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중에서도 청년 유치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의 한계를 보완했다. 청년 당사자,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편 청년 유치의 필요성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공감과 협력을 얻어내는 데 주력했다. 마을에서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마을의 빈집을 내주거나 청년 창업가에게 빈 점포를 소개해주기까지 이웃사촌지원센터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작용했다.

바. 과제: 청년과 지역의 융화, 지역 내 지원 주체 형성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4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초기 사업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거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기존 지역사회의 공감과 합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자원의 투입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 위화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지역 주민이 청년을 정책 자원의 경쟁상대로 인식한다거나 지원이 끊기면 떠날 기회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일도 있다. 또 개발 기대로 주변 지가나 임대료가 올라가서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기반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갈등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모두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여전히 외부인이기

때문에 심화되는 측면도 있다. 청년들의 지역 탐색 과정이나 이주 초기에는 지역 자원과 정보의 연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지역사회 내부에서 지지하고 연결하는 그룹이 없다면 계속해서 중간지원조직의 내부 역량이나 운영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부 청년의 유입과 지역 기반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공감과 합의를 얻으려면 청년 지원 활동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고 그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는 경험이 쌓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리더 그룹과 먼저 자리 잡은 청년들이 다시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이주 청년을 안내하는 ‘비밀언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소결

1) 다양한 농촌 지역 탐색과 학습 기회 제공 확대

농촌 지역 연고와 경험의 유무는 이주 초기 지역 정보와 자원 접근 방식과 그 다음 경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업·농촌을 경험해본 적 없는 도시의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꼭 이주와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농업의 가치, 농촌의 현실과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청년의 입장에서 농촌 지역을 경험하는 것은 표준화되고 계층화된 생애 경로 바깥에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다른 삶의 가능성은 청년에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힘과 불안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기회가 된다. 농촌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도시의 소비자, 지역의 관계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과 경험이 이후 농촌에서의 일과 삶, 이주를 모색해볼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

EU LEADER 프로그램 중에서도 청년들이 농업·농촌 관련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의 삶에서 오는 기회와 혜택을 알리는 활동이 다수를 차지한다. 일본 지역부흥협력대는 1~3년 동안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급여뿐 아니라 자기 활동을 조직해볼 수 있는 기타 경비까지 지원한다. 노토유학도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농촌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을 자기만의 고유한 커리어로 삼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여러 농촌 지역에서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한 달 살아보기’ 등 여러 탐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천군 한산면의 ‘삶기술학교’와 의성군 안계면의 ‘청춘구 행복동’도 같은 맥락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실제 모집인원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다. (삶기술학교 2019~2021년 입학신청 435명, 입학 176명/ 청춘구 행복동 2020년 1, 2기 203명 지원, 30명 선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지역을 경험한 청년들 중 절반 가까이 지역에 더 남아서 진로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삶기술학교 지역정착 63명, 청춘구 행복동 2020년 15명 정착) 청년들에게도 대안적인 삶을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농촌 지역 경험과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도시 청년, 청소년에게 농촌 지역을 소개하고 연결하고 탐색을 지원하는 ‘통로’를 더 넓고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청년의 이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 유치의 관점이 아니라 도농 간 사람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장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도농교류, 미래 세대 삶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사회혁신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농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청년 정착 지원과 교육 활성화

고령화·과소화된 농촌의 현실에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나 주거,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한두 달의 탐색 기간을 통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청년만의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해보라고 지원금으로 유도하는 대다수 지역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한 채 다시 청년 개인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다. 창업의 성공여부는 자본뿐 아니라 기술, 정보, 관계망 등 지역사회 자원을 얼마나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신중한 접근과 세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장기전이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농촌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찾고 시도해보기 이전의 학습과 모색 과정은 그 지역사회 안에서, 또 청년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공과 사, 업무와 생활, 관계와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생활세계이다.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 교육, 집합식 형식적 교육으로 진로를 안내하기에는 변수가 많고 한계가 있다. 결국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한다.

이주 청년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공의 영역, 공익적 활동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유럽 LEADER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지역문제의 혁신적 해법 모색, 통합적 농촌개발 활동의 일환이다.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도 도시 청년들이 지역 상품 개발 판매, 도농 간 이주 교류 지원, 환경보전 활동,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고령인 이동 지원, 지역 관광, 학교 지원 및 교육 활동, 마을 만들기, 주민 커뮤니티 지원 등 기존 지역 단체나 주민 조직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활성화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토 유학도 마찬가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 단체, 기업, 마을에 청년들이 힘을 보태면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된다.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도 지역 문제와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만남을 만들고 있다.

한편 이러한 농촌 지역의 열악한 조건과 문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대상이 바로 기반이 취약한 이주청년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주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문제를 가시화, 공론화 할 수 있다. 이주청년 당사자로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화하고 활동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청년 지원 활동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좋은 계기와 명분, 선례가 될 수 있다.

그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과 청년이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는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청년의 노동력을 동원한다거나 반대로 청년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고 과업을 수행하는데 지역사회를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잠재적 시장, 가용자원으로만 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과 지역사회를 잇는 이주청년 지원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3)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에 바탕한 농촌 지역 청(소)년 지원주체 양성

선행연구와 사례 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주청년의 지역 정착을 안내하고 돕는 지원주체, 즉 ‘비빌언덕’의 존재와 역할이다. 이 지원주체가 이주청년을 지원하는데 얼마나 그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과 단체가 함께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 세대의 일과 삶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EU LEADER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연구단체, 문화지역공동체 서비스 공급자, 지역기관 및 행정, 농민, 전문가, 주민, 지역단체, 환경단체 등 지역 내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지역행동그룹(LAG)이 그 역할을 한다. 일본 지역부흥협력대는 우리나라 읍면동 규모라고 볼 수 있는 시정촌 지방자치체가 중심이 된다. 일본 노토유학은 주식회사 미소기가와가 직접 청년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역의 상공회의소, 공영신용금고, 지자체, 민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중소기업 등이 ‘니나오유학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각각의 자원으로 노토유학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에서도 아와지섬의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지역고용개발협회, 관광협회, 다양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아와지 지역고용창조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협의회 사무국에서 사업 추진 과정과 실천지원자를 지원했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아와지 하타라보섬 협동조합’을 창립해서 협의회와 기능을 이어갔다. ‘삶기술학교’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자이언트지만 역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산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면사무소, 면내 모시조합, 소곡주 조합 등 지역 리더들의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 되었다.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도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경상북도와 의성군,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농촌이주청년의 통합적 지원은 개별 단체나 조직, 개별 사업으로는 담당하기 어렵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련 중간지원조직,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 지역사회 경제체, 면 단위 선주민과 농장, 주민단체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중앙/광역/지자체 차원의 자원을 생활권 단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조정, 변용하여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주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교

육 과정 기획과 운영을 논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 네트워크는 기존 면 단위 사회 내 주민자치회나 청년회, 주민 단체, 청년 영농조합,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등 다양한 주체가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담당할 수도 있고 새로 지역단위 청년활동 지원 플랫폼 기구를 조직할 수도 있다. 이때 이 과정과 지역네트워크 실무를 담당할 주요 주체(매니저,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 지원 범위와 내용이 농촌이주청년에 국한하기 보다는 정보 자원의 부족과 진로 모색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는 대상으로 넓히는 편이 좋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그룹의 청년과 청소년을 포함할 때 더 폭넓은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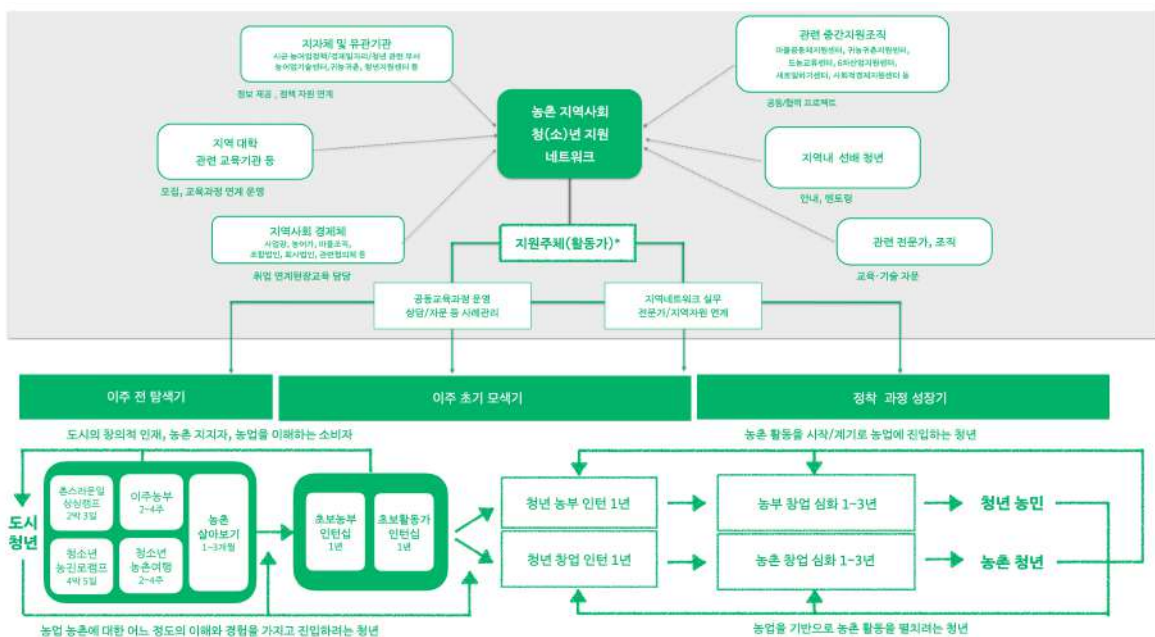
1. 충청남도 농촌이주청년 정착 및 이주 진작을 위한 정책 과제

1) 생활권 단위 농촌이주청년 지원 주체 조직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청년의 농촌 지역 탐색 및 이주, 지역에서의 진로 모색과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광역이나 지자체에 청년지원센터 등 관련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권 면 단위에서 지역사회와 청년을 연결하는 활동과 주체에 대한 지원은 없다. 면 단위에서 EU의 LAG, 노토유학의 나나오유학추진협의회와 같은 지역 주체가 형성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화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주체는 지역안팎 청(소)년의 농촌 정주와 진로 모색 과정을 기획하고 개개인에 대한 상담, 자문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지역 안내 및 학습과정을 운영한다. 몇몇 농촌 지역에는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다. 농장, 게스트하우스, 복지단체, 출판사, 여행사, 미디어, 식당, 카페 등 그 단체의 주 활동 분야와 형태 역시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지원 주체 조직 지원은 되도록 개인 사업자나 개별 농가가 아닌 지역에서의 공공성과 활동력을 인정받는 법인, 또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하도록 유도한다.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림 V-1] 농촌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주체 역할 및 네트워크 형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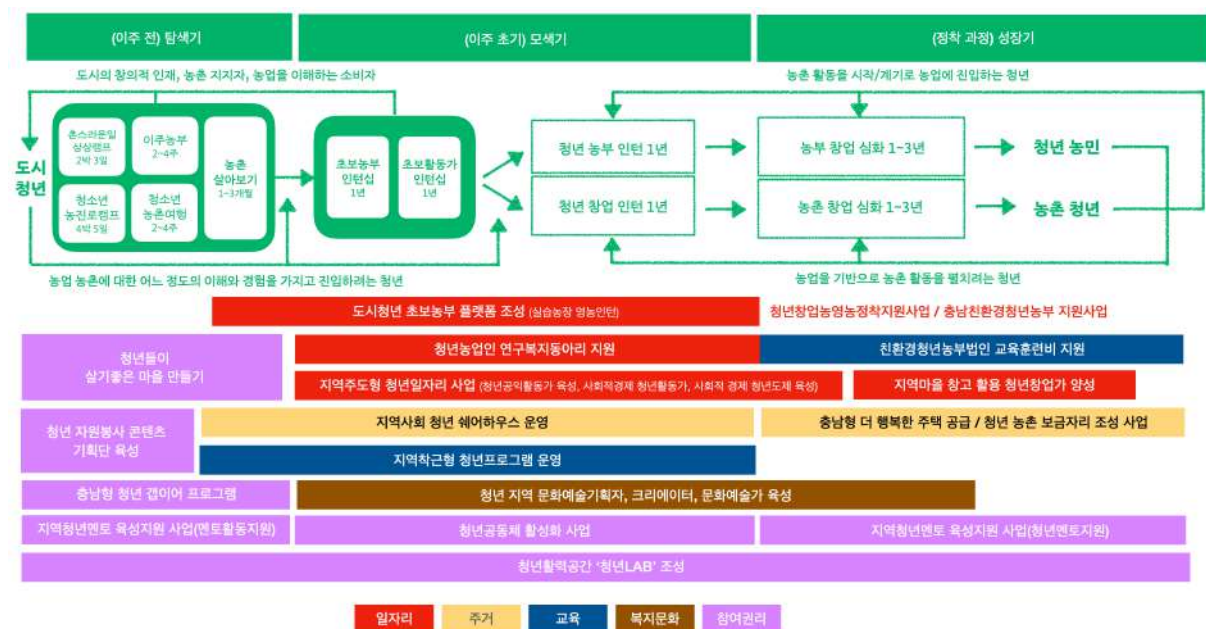


2)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역사회 지원주체가 형성되면 단편적·단기적으로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 정보와 자원, 정책사업, 교육훈련 지원 등을 지역 현실과 청년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기획하고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에서도 이미 다수의 청년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각 사업이 담당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생활과 청년의 삶은 행정 칸막이로 구획되지 않는다. 새로운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 보다 정책들이 활용되는 방식과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청년 지원 업무를 하는 팀이 있긴 하지만, 타부서의 사업을 조정 관여할 만큼의 권한은 없다. 의성군 사례처럼 지자체장의 의지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주무부서를 설치한다고 해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결국 구슬을 꿰는 일은 민간의 몫이다. 지역사회 지원주체가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순차적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정책들을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충남 청년정책을 지역사회 관점에서 검토했다. 농촌 지역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단계와 이주 후 지역사회에서 진로를 모색하는 단계,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단계별로 먼 단위 민간 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의 농촌 이주 정착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연속적 혹은 통합적 정책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그림V-2] 충남 청년정책 연속적 순차적 활용 시나리오



2. 충청남도 농촌이주청년 정착 및 이주 진작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

1) 면 단위 청(소)년 활동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가. 추진배경

-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농촌이주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및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 촉진,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협력 강화 필요

나. 지원대상

- 농촌이주청년 교육과 지원 경험, 의지, 역량이 있는 농촌 생활권(1개 면 또는 2~3개 면) 단위 지역 네트워크와 대표 법인(주민자치회,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다. 지원 예산 및 기간

- 연 5,000만 원, 최대 5년 (연차별 점검과 재선정)

라. 지원내용

ㄱ) 면내 유희공간 리모델링

- 청년 활동 및 세대 간 만남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
- 면내 농촌지도소, 폐교, 빈집 등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농촌이주청년 활동 거점 및 네트워크 공간으로 조성
- 지역 여건과 청년 활동 성격에 따라 책방, 공방, 가공장, 카페, 식당,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활동 지원

ㄴ) 면 단위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협의체) 구축

- 지역 청(소)년을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의 공동학습 및 교류 활동 촉진
- 주민자치회 청년분과, 마을자치회 청년상담소 등을 신설, 지역내 기관단체, 개별 마을 리더, 농장, 사업체 등 참여·협력
- 농촌 청(소)년 교육 및 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협력하는 주민 주체 조직화 지원

ㄷ) 농촌이주청년 면 단위 지역 활동 지원

- 유희공간 운영, 지원주체 조직화, 네트워크 형성 실무 인력 활동비 지원

2) 면 단위 청(소)년 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가. 추진 배경

- 농촌이주청년 정착지원과 지역 청(소)년 진로모색 지원은 다수 기관의 협력과 정책의 통합적 연속적 지원이 바탕되어야 함. 지역사회 지원주체가 주도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나.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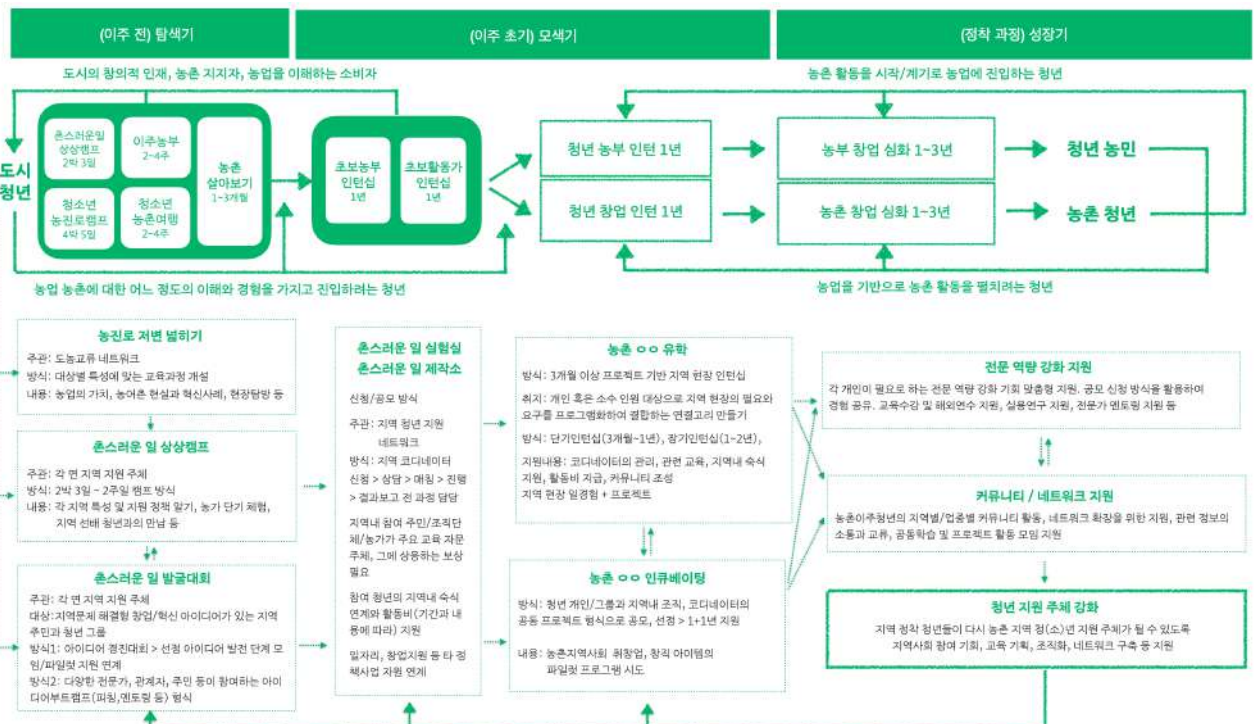
- 농촌이주청년 교육과 지원 경험, 의지, 역량이 있는 농촌 생활권(1개 면 또는 2~3개 면) 단위 지역 네트워크와 대표 법인

다. 지원방식

- 지역사회 상황과 조건, 주민의견 수렴, 지원주체 역량, 청년 욕구 분석에 기반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정책 자원 연계
 - (1안)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기존 각 분야별 청년정책사업을 묶어 패키지로 지원
 - (2안)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용역 또는 포괄보조 예산 지원

라. 농촌 청년 유입 및 정착 단계별 종합계획 예시

[그림V-3] 농촌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종합계획 예시



ㄱ. 이주 전 탐색기

농업·농촌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활동, 관련 인문 문화 교육부터 단기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하고 넓은 유입 통로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활동/지원 영역과 기한을 제한하기보다 경로와 단계를 개방.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기본 소양을 갖춘 청년을 교육,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역 단체나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 주체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가용 자원과 정책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지원과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 등 일학습, 일경험 과정을 운영 지원할 때 이후 과정으로 연계가 용이하다.

(1) 농진로 저변 넓히기

- 대상: 지역 청소년, 대학생,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 농촌·농업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청년 대상
-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지역 주민, 농민이 주강사로 활동
- 내용: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과 먹거리, 환경, 교육, 예술, 농촌사회, 지역공동체, 사회적 농업, 사회혁신 등 대상별 / 주제별로 농업·농촌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연속 기획 강좌
- 기대효과: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인구 저변 확대, 이후 농촌 이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 소개

(2) 농진로·농창업 '촌스러운 일 상상캠프'

- 대상: 농촌 지역에서 창업·창직을 모색하는 청(소)년, 아직 지역 정보와 관계망이 없는 초기 이주 청년 등
- 방식: 2박 3일 ~ 2주 이내 캠프
- 역할: 지역 청년 활동 관련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체/농어가가 교육 담당, 전체 일정 기획과 섭외, 참가자 모집, 관리는 지역 네트워크 코디네이터가 진행
- 내용: 지역의 특성, 자원, 정책 소개, 지역 내 농어가 또는 사업체의 일상 체험하기, 지역 네트워크 조직 탐방, 청년 선배 사람책 프로그램 등, 이후 준비기 및 개시기 연계 프로그램 안내 등
- 기대효과: 일상의 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현실 이해, 지역의 구체적인 자원과 관계망에 접속

(3) 농진로·농창업 '촌스러운 일 발굴 대회'

- 대상: 농촌 지역 창업·창직 의지를 갖고 있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지역 주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현 단계로 발전시키고 싶은 청년, 지역 문제 해결 활동을 청년과 결합하여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주민, 농업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싶은 청년

- 내용 및 방식: 농촌 지역사회 관련 창업·창직 발굴 대회 공고 ⇒ 아이디어 기획서 바탕 신청 00팀 선발 ⇒ 아이디어 기획서 참고 관련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 코치 섭외 ⇒ 창업·창직 희망 청년 + 코칭 팀 구성 ⇒ 일정 기간 워크숍 및 개별 코칭 진행 ⇒ 프로토 타입 제작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 결과 발표 대회 ⇒ 우수 아이디어 선발 ⇒ 이후 지원 사업 연계
- 기대효과: 농촌 취창업·창직의 혁신 모델 발굴·지원, 농촌 이주희망 청년 또는 관계인구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나. 이주 후 모색기

(1) '촌스러운 일 제작소' / '촌스러운 일 실험실' 사업 구축

- '지역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매니저 기구'의 활동 명칭,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농촌 ○○ 유학', '○○ 리빙랩'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관리
- 방식: 프로그램 참여자 신청, 상담, 지역의 인턴십/리빙랩 협력 조직(기업,농어가,단체 등) 매칭 > 인턴십/리빙랩 진행, 조정 > 결과보고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거점 역할
- 참여 청년의 지역 내 숙식 연계와 활동비 지원
- 인턴십 지도, 리빙랩 코칭 협력조직에는 그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급 필요
- 지역의 협력조직의 교육 및 관리, 소통을 담당, 협의 모임 진행
- 유학/리빙랩 과정에 지역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타 정책사업 자원 연계

(2) 농촌 ○○ 유학

- 대상: 농촌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관련한 일이나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농촌에서 자신의 경험을 쌓고 이후 창업 창직을 희망하는 사람
- 방식: 지역 주민 단체와 신청자를 매칭, 3개월 이상 프로젝트 기반 지역현장 인턴십 진행
- 인턴십 진행: 농촌 지역 내 사업체, 농가, 주민조직, 중간지원 조직 등
- 내용: 지역현장 일경험 + 프로젝트(상품개발, 예술창작, 이벤트 기획 등) 예) 토란을 활용한 지역 특산 가공품 개발, 6차산업화 마케팅 개발, 폐교를 활용한 주민 공간 조성, 지역 농부 인터뷰집 제작, 지역 자원 지도 만들기, 지역 농어업유산

관광코스 개발, 마을 어르신을 위한 교육복지활동 등

- 기대효과: 개인의 성장과 지역 활성화 도모,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프로그램화 하여 지역에 기여, 조직의 활동 영역의 확대와 지역 주체의 교육 역량 강화, 참여자에게 농촌 일 경험과 지역 이해, 관계망 확장의 기회 제공
- 이후 정식 고용, 관련 분야 취창업 연계

(3) 농촌 ○○ 인큐베이팅

- 대상: 농촌 창업·창직 아이템을 사업화 하고 싶은 청년이 지역 내 관련 기관 조직, 생산자 등과 팀을 구성하여 신청, ○○유학 인턴십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사업화 하려는 팀 우선 산발
- ‘촌스러운 일 실험실’ 매니저(코디네이터)가 리빙랩 진행 과정을 관리, 조력
- 내용: 농촌지역 취창업 아이템, 지역사회 사업의 파일럿 프로그램 시도, 상품화 또는 조직화 과정 지원 (창업보육공간, 씨드머니, 활동비, 전문가 자문 지원, 멘토링 제공 등)
- 기간: 1년 + 1년
- 기대효과: 농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해법 발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제고와 일자리 창출

다. 정착 과정 성장기

(1) 농촌 지역 청년 커뮤니티/네트워크 지원

- 대상: 농촌 지역 내 청년으로 이루어지거나 청년이 포함된 3인 이상의 팀
- 내용: 공동 학습 및 취미 활동 등 동아리 모임 지원 / 네트워크 행사 기획 및 진행, 3개 팀 이상의 공동 프로젝트 지원
- 기대효과: 농촌 지역 청년의 지역별 커뮤니티 및 교류 활성화, 네트워크 확장

(2) 농촌 지역사회 청년 활동가 전문역량강화 지원

- 대상: 농촌지역이주 5년차 이상 지역 청년 활동가
- 배경: 도시 지역 시민단체나 공익활동 단체 법인에 고용된 직업 활동가들은 역량 강화 기회가 많지만, 농촌지역 활동가는 관련 지원 및 복지혜택이 없음
- 내용: 관련 분야 교육수강 지원(대학원/전문교육과정 교육비), 단기 해외탐방/연수(연수기획과 비용 지원), 실용연구, 전문가 멘토링, 쉼(안식월) 지원 등
- 방식: 개인이 필요로 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후 비전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공모/선정 방식)

- 기대효과: 그 결과를 정리/발표하여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활동가 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

(3) 농촌 지역 청년 지원 주체 강화

- 면 단위 지역별 자율 공모 시범사업 추진
- 대상: 농촌 지역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의 기획·주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내 기관, 단체, 학교, 조직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농촌이주청년 지원 사업을 계획, 그를 지원
- 내용: 지역자원 발굴 프로젝트, 선배 청년과 함께 하는 커리어디자인 프로그램, 갭이어 과정 등을 지역 특성을 살린 자체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지원
- 방식: 1~3년의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각 단위 사업의 세부 조정과 결합,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 농촌 면 단위 이주청년 지원의 종합형 계획 수립과 추진 주체 형성을 목표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외. 2021.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보도자료(2021.6.24.). 관계부처 합동.
- 대구경북연구원. 2021. “이웃사촌 시범마을 성과 분석 및 확산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 내부 자료. 경상북도.
- 듣는연구소.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현황 연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마을학회 일소공동. 2018. 『지방의 청년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마을연구소 일소공동 협동조합. 2019. 『청년 삶의경로 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확대 및 발전방안』.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삶기술학교. 2019. 『제삶시대@서천』. 행정안전부.
- 삼선재단·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 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삼선재단.
- 서복경. 2020. 정책적 실천과정으로서 청년정책 연구: 현황과 과제. 『청년연구자 되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 신소희·전진아. 2020. 『전남 농수산분야 여성일자리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전남여성가족재단.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충청남도. 2021. 「2020년 충남 통계연보」. 충청남도.
- 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9.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통계청. 「2013~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관계부처 합동.
- 통계청. 「2019~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보도자료.(2020.6.29.). 통계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건강농업연구소. 2020. 『청년세대 농산어촌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삶기술학교 홈페이지 <http://slowtech.ac>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
- 일본 하타라보지마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hatalabojima.com/>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
- EU 지역개발네트워크 홈페이지 enrd.ec.europa.eu